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8호

8-9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거름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도종환 시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랜덤하우스, 2012) 중에서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CONTENTS

2026년 8-9월호

04 이달의 말씀 **팝콘과 병아리** 김주용 위임목사

06 특집 : 연동교회 규정 개정 **새 옷을 입는 연동교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13 무료 셔틀 차량 시범 운행 **"혜화역에서 교회까지 약 3분!"**

연못골 광장

14 1018예수사랑 **한 팀 한마음** 하도희 성도(초등부 6학년)

15 2030새벽이슬(1) **다시, 주님의 손을 잡다** 윤재원 성도(HI청년공동체)

16 2030새벽이슬(2) **영혼육의 죽음** 김영진 성도(HI청년공동체)

18 살며생각하며 **반 고흐의 작품은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고위공 공로안수집사(분당구역)

20 특별기고 **"위작을 품은 신앙", 고 이재몽 장로님을 추억하며** 김인흥 은퇴집사(새문안교회)

21 9.10월 행사 안내

청년광장

22 HI청년공동체 **열정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HI청년들**

24 HI청년들 이야기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

26 믿음의 스포츠인(5) **담대한 증거의 영성, 팀 티보** 오한빛 목사

28 궁금해요 Q&A(5) **미술관에 진심이 되는 가을, 무엇을 보아야 할까?** 김수경 집사(예술인문학 박사)

30 소그룹 탐방(10) **말씀으로 길을 찾는 '라비린스'**

32 칭찬합니다(21) **"임진석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33 이 달에 보는 연동역사이야기(2) **오늘로 이어진 연동교회 132년** 고석주·박현미 역사위원

34 바이브릿지 II / YBS 가을학기 개강

35 연동 북하우스(27)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선교

3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심는 것은 우리의 몫,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
38 중국어예배반 **제주 3박 4일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39 필리핀예배공동체 **WIN-Seoul 교회 20주년 감사와 기쁨의 시간**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40 청소년주일학교
48 여름사역
56 전국 어린이대회

연못골 사람들

57 안내 **11월, 교구별 한마음 탁구대회가 열립니다! / 2026년 게일학술세미나**
58 왓두유뽀리빙(10) **한국어로 이어지는 연동 울타리, 김승애 집사와 제프**
60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25) **마케터 윤현종 청년**
62 새신자 어게인(28) **30년 해외생활을 마치고 연동에 닻을 내린 김남구·이종희 성도 부부**
64 전도활동팀
65 연못골과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2)
66 지체들
72 중남미 선교지 방문 안내
81 연동복지재단
82 신협 현황, 목양위원회
83 연동컬러링

제목: 신나게! 힘차게! 어와나!
재료: 사진에 AI(ChatGPT)
제작일: 2026년 9월 16일
그림 내용: 9월 개강날, 다시 모인 아이들의 웃음꽃 핀 얼굴, 이번 학기에도 함께 자라갈 아이들의 힘찬 출발입니다.
제작자: 연못골 편집부



팝콘과 병아리

어떤 정신분석가가 스스로 '팝콘'이라고 생각하는 한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몇 년간 열심히 치료하여 팝콘 환자는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정신분석가가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 나았다고 판단한 정신분석가는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간 지 채 5분도 안 되어서 환자는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밖에 병아리가 있다고 말해 주셨어야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정신분석가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팝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알지요. 하지만 병아리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빗대어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도 변하고, 세상도 달라지고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취적입니다.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자신도 발맞추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 그룹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변하는 세상과 달리 자신은 변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양쪽의 갈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변하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믿고, 좋은 전통과 과거의 지혜를 굳건히 붙들고자 합니다. 또한 진보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후퇴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미래와 내일에는 더 나은 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세상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이 부류의 양쪽 사람들은 세상을 양 날개로 날아가는 새로 비유한다면 꼭 필요한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팝콘과 병아리의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변화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변화의 한자어인 '변'(變)자는 "말을 잇다"라는 뜻의 '련'자와 "두드리다"라는 뜻의 '복'자가 합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련'자는 두 개의 실이 이어지는 형태를 의미하고, '복'자는 막대기로 무엇인가를 두드리거나 치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곧 변화의 '변'은 상호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양함이 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반드시 외부의 요인과 환경의 변이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팝콘' 환자가 자신이 더 이상 팝콘이 아님을 확신했을지라도, 자신의 변화가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 때



김주용 위임목사

에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변했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팝콘 환자와 같이, 세상은 온갖 병아리들로 가득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나도, 세상도 변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40년 전,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일본의 패전을 알지 못한 채, 혼자 진지를 만들어 놓고 전쟁 중이었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자신도 변하지 않았고, 세상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간 '오노다 히로'는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양쪽 다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부류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 모여 서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가치 있는 신앙의 삶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셋째와 마지막 부류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 본위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을 이어갑니다.
'변화'는 자기가 변했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하는 것들의 소통 속에서 서로 달라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팝콘과 같은 성도들은 분명히 교회를 병아리와 같이 보면서, 계속 있지도 않은 부정적인 문제들만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오노다 히로'와 같은 성도는 교회를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만큼이나 변하고 달라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너무도 급변하는 것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교회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살겠다고 진지를 만들고, 자신은 달라졌다면서 여전히 병아리를 두려워한다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느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세상이 언제까지 기다려 줄 것인지를 생각하며, 날로 새로워지라는 주의 말씀은 이제 권면이 아닌 영적 의무로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졌는데, 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새 옷을 입는 연동교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1993년 제정 이후 최대 규모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목차〉

들어가며
1. 기본운영규정
2. 제직회 부서 조직
3. 교회학교·목양·위원회
4. 재정·사무·직원 규정
나가며

기획 및 정리: 고현수, 임재철, 조유경 기자, 박현미 편집장
자료 제공 및 감수: 기획위원회

들어가며

왜 개정했나?

- 교회는 변했는데 규정은 2012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연동교회 규정은 1993년 6월 1일 제정 이후 일곱 차례 개정을 거쳐 2012년 개정안을 최종본으로 써 왔습니다.
- 그 사이 교회 행정 조직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라진 부서가 있는가 하면, 새로 신설된 부서·팀(미래세대부, HI청년공동체, 새가족부 등)은 규정에 없었고, 부서 명칭과 직무 내용도 실제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 이에 현장 목회 실정과 변화된 행정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의 기본 원칙은?

-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의 정신을 존중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연동교회의 신앙 전통과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마련되었나?

- 2024년 7월~2025년 1월 기획위원회 기초 검토를 시작으로, 2026년 3~6월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 6월 21일 장로간담회 보고 및 논의를 거쳐 6월 28일 당회 승인, 7월 5일 제직회 승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 변화한 연동교회의 현실을 규정에 정확하게 담아내는 데 있습니다.
30여 년간 교회를 지켜온 규정이 시대에 맞게 새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기본운영규정

교회의 의사결정과 주요 기관의 틀을 먼저 정비했습니다.

당회와 주요 기관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운영규정에서는 당회의 직무, 당회가 두는 기관, 상설위원회, 인선위원회 등의 규정을 현재의 운영체계에 맞게 손질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치를 정비하고,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인선위원회의 역할과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 교역자와 제직원의 인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인선위원회 규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인선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과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인선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와 장학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 세계선교위원회는 선교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선교사 파송, 선교비 지원, 선교센터 지원, 선교 관련 재정의 운영 등 실제 사역 내용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선교사 구비서류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선교사 생활비	미화 1,800불 → 2,000불
선교사 파송	사역을 6개로 세분화, 파송 기한·보고 의무 강화, 징계 대상 대폭 강화
선교비	생활비·사역비·정착비·치료비로 구분, 관리 원칙 1~6항 신설

- 장학위원회는 장학기금의 조성과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 구성도 크게 늘리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운영 기준도 바뀝니다

-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은 기존과 같이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으로 하되,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습니다.
- 제직회에서는 회원 자격의 표현을 정비하고(집사→안수집사), 일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가장 큰 변화는 제직회 부서 체계를 현재의 교회 사역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2. 제직회 부서 조직

11개 부서에서 13개 부서로, 실제 사역의 모습을 담아 부서를 재편하였습니다.

기존 내용	개정 내용
1. **예배부**	예전팀 신설(예배봉사팀에서 분리되어 주일예배 및 절기 예배 진행 도움 등)
선교부	2. **국내선교부**로 명칭 변경(개척교회의 선정과 후원, 노회 등 대외전도 협력 등 관련 업무)
선교부 내 새가족팀	3. **새가족부** 신설(새가족관리팀, 새가족양육팀, 새가족정착팀으로 나눔)
교육부	4. **미래세대부**(미래세대연구팀 신설) 5. **평신도교육부**(이단사이비대책팀, 기독교가치관교육팀 신설, 새가정팀 폐지)
6. **사회봉사부**	환경보전팀, 구제봉사팀 신설
7. **친교부**	경축팀 폐지
8. **영성훈련부**	데바레카성경통독팀 신설, 상담팀 이관(당초 교육부)
9. **음악찬양부**	찬양대지원팀, 찬양단지원팀 분리
10. **문화선교부**	문화기획홍보팀을 문화선교팀으로 명칭 변경
11. **재정부**	변동 없음
12. **상례부**	상례1팀, 상례2팀으로 분리, 연동동산관리팀으로 명칭 변경
13. **총무부**	시설운영팀 업무에 가나의 집 게스트룸 운영 추가

새가족부가 독립합니다

새가족 사역은 새가족관리팀, 새가족양육팀, 새가족정착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등록 이후 양육과 정착까지의 과정을 규정상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부를 두 방향으로 나눕니다

기존 교육부는 미래세대부와 평신도교육부로 나뉩니다. 미래세대부에는 청소년주일학교지원팀, HI청년공동체지원팀, 미래세대연구팀을 두고, 평신도교육부에는 평신도학교지원팀, 이단사이비대책팀, 기독교가치관교육팀을 둡니다.

그 밖의 부서도 실제 업무에 맞게 정비

- 사회봉사부: 사회봉사·재활용·환경보전·구제봉사로 역할을 구분
- 영성훈련부: 영성훈련·성경통독·제직훈련·상담 영역을 구체화
- 음악찬양부: 찬양대·찬양단 지원과 기자재 관리 업무를 구분
- 문화선교부: 문화선교·홍보출판·미디어 업무를 구체화

3. 교회학교·목양·위원회

다음 세대와 교우를 돌보는 체계를 규정에 담았습니다.

교회학교의 조직을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

교회학교는 평신도학교, 청소년주일학교, HI청년공동체로 구분해 조직과 역할을 정비했습니다.

HI청년공동체가 규정에 명문화됩니다

HI청년공동체는 청년1부와 청년2부로 운영하고, 교장·교감·교무·회계 및 담당교역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공동체의 조직을 교회학교 규정에 명시한 것입니다.

평신도학교의 교육 영역도 구체화

세례문답, 성경통신, 일대일제자훈련, 공적제자도학교, 장년부, 새가정부 등의 조직을 두도록 했습니다. 기존 '일대일제자양육부'는 '일대일제자훈련부'로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청소년주일학교의 조직을 명확히

영아·유아·유치부부터 유년·초등·중등·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 조직의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 어린이전도단, 아름꿈방, 연동숲속아기학교, 주니어앙상블, 주니어콰이어 등도 규정에 반영했습니다.

목양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목양위원회는 교구와 구역을 중심으로 교우의 교회생활을 살피고 심방과 중보기도에 힘쓰는 조직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목양관리팀과 중보기도팀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팀	역할
목양관리팀	행정·회계·통계 관리
중보기도팀	교회와 교인을 위한 중보기도

장학위원회·사랑의기금,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

구분	주요 내용
장학위원회	기금: 2,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 봉헌으로 상향 조정 선발 기준: 성적에서 학업 및 교회 생활에 충실한 학생으로
사랑의 기금	대상: 교회 밖의 개인·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경제적 어려움·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인까지 대상 확대

4. 재정·사무·직원 규정

교회의 재정과 행정, 직원 업무에 관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감사, 더 분명하게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재정·회계 관리는 기록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집행·결산·회계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중심이던 결산 방식을 수입·지출 결산 중심으로 간소화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현황을 관리·보고하는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사무처의 역할을 명확하게

사무처는 각종 회의 운영 지원과 회의록 관리,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운영, 총회·노회·시찰 관련 업무, 각 부서와 기관의 행정·재정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업무를 재정비했습니다.

직원 규정에서 달라지는 점

직원의 근무와 휴가, 업무, 포상·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직원 임면	남녀평등한 기회 보장, 차별대우 금지 조항 신설
출퇴근 및 근무 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근로기준법 적용, 교회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
휴직 기간 보수	교회 업무 중 부상일 경우, 보수 지급 조항 신설
연차 휴가	1년 이상 근속자 12일 → 15일
징계	소명의 기회 부여,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14일 이내 통보하는 조항 신설
보안 업무 강화	• 교적부, 교인명부 등 개인정보의 외부 누설 방지 관리 • 해킹 등 외부의 부당한 자료 탈취를 막기 위한 기능 구축, 결과를 매년 당회 보고 • 교회 행정자료를 월말·연말 단위 전자파일로 보관 •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는 전자파일로 변환, 사무처에서 통합 보관

나가며

교인 여러분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제직·임직되시는 분들 '집사'와 '안수집사' 구분, '위임목사' 명칭 등 행정 체계가 실제와 일치해 혼란이 줄어듭니다. 인선위원회는 비밀유지 의무로 더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장학·기금에 참여하시는 분들 독립명칭 기금 기준(5,000만 원)은 올랐지만, 지원 대상이 경제적 어려움·질병 등 도움이 필요한 교인까지 넓어지고 절차도 투명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차휴가 15일, 근로기준법 적용, 부상 시 휴직 보수, 남녀평등, 개인정보 보호, 소명 기회 보장 등 처우와 권리 보호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교육·청년 사역 평신도학교·청소년주일학교·HI청년공동체 체계 아래 미래세대 사역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묘지·게스트룸 이용 상례부 구역 관리 방식이 정비되고, 기존에는 매장만 가능했던 갑지구도 화장 후 매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게스트룸(가나의 집) 입주 원칙(연 1회 2주)도 명확해졌습니다.

선교·해외선교사 생활비가 2,000불로 인상되고, 보고·사임·위기관리 절차가 정비되어 선교 현장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남선교회·여전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연령별 조직이 6개에서 4개로 통합되고 연령 기준도 현재 교인 구성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별도 조직이던 청년선교회는 폐지되고 관련 사역은 HI청년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에서 기억할 여섯 가지

	핵심 변화	주요 내용
1	조직 정비	현재 운영되는 부서와 사역에 맞게 조직을 재편
2	새가족·미래세대 강화	새가족부 신설, 미래세대부와 HI청년공동체 체계화
3	신앙교육 확대	평신도교육·성경통독·상담 등 사역을 구체화
4	목양체계 정비	목양관리와 중보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함
5	재정·감사 강화	전산회계, 교회 명의의 계좌, 감사보고 체계를 명확히 함
6	개인정보·기록관리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자료 보관체계를 명문화

새 규정과 함께 출발하는 연동교회, 기대합니다

1993년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온 규정이 2027년부터 전면적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변한 것은 문구만이 아니라, 사라진 부서 자리에는 새 사역이, 낡은 기준 자리에는 현실적인 기준이 들어섰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섬기는 이들의 노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번 개정이 지향한 곳입니다. 새 규정이 우리 연동교회의 건강한 운영과 은혜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2027년 1월 1일, 새 규정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연동교회, 기대가 됩니다!

**더 자세한 개정 내용과 문의는 기획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혜화역에서 교회까지 약 3분!”

10월부터 매주 주일, 무료 셔틀 차량 시범 운행
주일 오전 7시~11시 10분, 혜화역에서 출발



※연동신협 앞 도착, 사회교육관 1층 입구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예배별 배차 시간표(오전 7시부터 운행 예정)

예배	혜화역 출발(셔틀)	예배를 위해 교회 도착 예정	예배 시작
주일 1부	07:00~07:40	07:50	08:00
주일 2부	08:00~09:10	09:20	09:30
주일 3부	09:30~11:10	11:20	11:30
주일 4부(추후)	11:30~12:40	12:50	13:00

※ 교통 상황에 따라 약 3~5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배 후 교회에서 혜화역까지 셔틀 차량 이용 가능. 단, 예배를 위한 하차자가 우선 이용합니다.

혜화역에서 교회까지 걷기 힘드셨다면,
이제 편하게 셔틀을 이용하세요.

- 어르신과 유아 동반 가정, 휠체어 이용 성도 등 모든 교우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승강장마다 안전 도우미 봉사자를 배치합니다.

※ 운전 봉사자와 안전 도우미 봉사자 모집 중!

문의: 연동교회 당회 셔틀차량 기획팀(강철민 장로 ☎ 010-2102-9187)

한 팀 한마음


하도희 성도
(초등부 6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6학년 하도희입니다.
2026년 올해 찬양율동 대회를 준비하면서 재미있었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었던 일들은 4명이 한마음으로 함께 율동을 연습하고 대회에 나간 것처럼 집중해서 율동을 맞춰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 시작 전에 초등부에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중간에 전도사님이 음료수도 사주셔서 주일마다 재밌게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고, 4명의 마음이 잘 맞아서 더 재밌었습니다.

5월 9일(토)에 있었던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때는 소년부 참가팀이 연동교회 한 팀만 있어서 경쟁팀이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4일(토)에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 때는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때보다 더 떨렸지만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에서는 1등을 하였습니다.

전국어린이대회 때는 먼 대구까지 가서 참여했는데요.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만나 KTX를 타면서 엄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에 도착하고 대회가 열리는 교회까지 가는 길이 무척 설렜습니다. 드디어 전국어린이대회가 시작되고 찬양율동을 할 때 4명 모두 마음이 너무 떨렸습니다. 떨리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은상을 탔습니다. 엄청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도희야 정말 수고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부 마지막 6학년 때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율동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멀리 대구까지 함께 가주신 전도사님과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6학년 2명은 졸업을 하지만 내년에 6학년이 되는, 이번에 같이 참여한 5학년 2명과 후배들로 새롭게 만들어질 찬양율동팀도 꼭 좋은 결과를 얻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잡다



윤재원 성도
(H청년공동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부 Be one셀 소속 윤재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연동키즈로 교회에 출석해왔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습관처럼, 주일학교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해 교회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못한 채로 교회에 발걸음을 더디 하다가 결국 성인이 된 이후 완전히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꾸준히 섬기고 계신 엄마의 권고로 몇 번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때론 청년부 수련회를 참여하기도 해봤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 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평소와 같은 삶을 지내오던 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을 통해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며 작지만 귀한 교회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섬기며 느낀 점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섬김이 아닌, 마음속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니 그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예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잃어버린 양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느끼실 그 기쁨 또한 얼마나 크실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삶의 자리에서도 찾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학도로서 대학교를 졸업할 저에게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친 사람의 마음을 상담하고 돌봐주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고 싶은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 저의 삶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입니다. 롬 6: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순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육의 죽음



김영진 성도
(HI청년공동체)

상실은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다른 얼굴로 찾아오는 경험이었다. 나는 그것을 영, 혼, 육 세 번의 죽음을 통해 마주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반려견의 죽음, 그리고 사회적 죽음.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게 했다.

육의 죽음 | 하늘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

처음 상실은 열일곱 살,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면서 경험했다. 그 나이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직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었다. 상상해 본 적 없는 현실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엄마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빠의 몫까지 부족함 없이 나를 키워내신 엄마 덕분에, 나는 아버지의 부재를 크게 실감하지 못했다. 또한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동안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존재적 사랑으로 나를 키우셨다. 더 나아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통해 '영원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다.

그로 인해 나는 아버지가 영원한 천국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은 죽음을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했다.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였고, 믿음과 신뢰의 또 다른 형태였다.

혼의 죽음 | 슬픔의 자리를 채우는 기억과 은혜

두 번째 상실은 훨씬 더 또렷한 감정으로 다가왔다. 15년간 함께한 첫 번째 반려견 셀리를 떠나보내면서였다. 셀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사춘기 시절, 동생을 갖고 싶다고 말하던 나에게 아버지가 선물해 준 또 다른 가족이었다. 함께 아빠의 삶과 죽음의 과정을 지났고, 말없이도 존재적으로 정서를 나누며 사랑하는 존재였다.

그런 존재의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를 흔들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는 다르게, 셀리를 떠나보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상실감'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엄마가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을 때 느꼈을 감정을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집 안의 작은 흔적들, 늘 있던 자리에 더 이상 없는 모습, 익숙하게 들리던 소리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수시로 무너뜨렸다. 슬픔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또 한 번의 은혜를 통해 나는 깊은 슬픔을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올 수 있었다.

그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비로소 슬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과 기억이

현재에서 끊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아 계속 나와 함께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의 죽음 | 어둠 속에서 마주한 부르심의 소망

세 번째 상실은 전혀 다른 형태로 찾아왔다. 2025년, 관계를 통해 경험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붕괴였다.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모습, 내가 속해 있다고 믿었던 자리,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시선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었다. 사회적 죽음은 조용하지만 깊게 사람을 흔든다. 단순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넘어,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전까지 나를 설명해 주던 맥락들이 사라지면서, 나는 마치 어둠 속에 홀로 떠 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 상실은 앞선 두 경험과 달리, 나의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었다. 나는 나를 증명해 주던 관계를 잃었고, 그로 인해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경험은, 내가 진짜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가 아닌, 나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죽음 이후의 삶 — 더 넓은 정원으로

이렇게 세 번의 상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켰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반려견의 죽음은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며, 사회적 죽음은 물리적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나는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태하는 과정처럼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돌이켜보면, 상실은 나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나를 만들어왔다.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아프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 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살게 하신 부르심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상실을 단순한 '잃어버림'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이 끝나는 동시에,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누군가는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고, 나의 일부로서 계속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상실을 다르게 바라본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머물던 화분이 작아져 더 넓은 정원으로 옮겨지는 일과도 같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이전보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자라간다.

반 고흐의 작품은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고위공 공로안수
집사(분당구역)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화가 반 고흐의 미술작품은 그 진정한 의미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만년의 유화 〈별이 빛나는 밤〉(1889)도 예외는 아니다. 화가의 사망 이후 수많은 예술가의 영적 창작력을 유발한 작품에는 밤하늘, 별, 구름, 나무, 마을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무엇보다 화면의 2/3를 차지하는 밤하늘과 밤하늘을 가득 채운 찬란한 별은 유화의 중심을 형성한다.

유화 〈별이 빛나는 밤〉의 묘사에는 화가의 영적 상상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짝이는 별은 신약성서의 예수탄생 기사에서 동방박사를 말구유로 안내한 '베들레헴의 별'(마 2:2)을 상기시킨다. 밤하늘 끝을 향해 치솟는 거대하게 불타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영원한 하늘을 동경하는 인간의 영혼세계를 나타낸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나무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연상시킨다.

잘 알려진 밤의 별의 풍경화 〈밤의 카페 테라스〉(1888)는 성서의 요소와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작품으로 인정된다(그림). 고흐의 작품 가운데에는 〈피에타〉(1889), 〈성경이 있는 정물화〉(1885)를 비롯하여 기독교 요소와 주제를 다룬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것은 목사의 직업을 꿈꾸던 고흐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신앙의 자세를 반영한다.

유화 〈밤의 카페 테라스〉는 기독교 주제를 다룬 대표작은 아니다. 여기에는 성서모티브가 은폐된 비밀형식으로 암시되어 있다. 밤의 카페장면을 지배하는 짙은 노란색, 별빛으로 수놓은 밤하늘을 각인하는 파란색, 등장인물, 건물구성은 기독교의 속성을 보여준다. 식사장면의 중심에 서서 서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있다. 그가 착용한 흰색 옷은 아를 주민의 복장은 아니다. 카페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열한 명의 남자는 열한 제자, 문에서 나가는 검은 윤곽의 남자는 유다를 가리킨다. 예수님 후면의 가문비나무 창문은 십자가 형상을 보여준다. 예수님 위에 위치한 밝은 불빛은 신성한 후광이다.

〈밤의 카페 테라스〉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에 대한 화가의 회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초의 밤하늘 유화를 구상하던 고흐의 영적 상상력에는 카페의 식사가 자신의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진다. 유화가 생성된 1888년은 화가가 사망하기 1년 전의 시점이다.

‘고통의 천재화가’는 곧 닥쳐올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손수 제공한 최후 만찬의 때늦은 동참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하였는지 모른다. 밝게 빛나는 카페의 식사장면에서 중심을 형성하는 부분은 종업원의 복장으로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예수님이다.



“위작을 품은 신앙” 고 이재몽 장로님을 추억하며



김인흥 은퇴집사
(새문안교회)

이재몽 장로님은 경제 전문가이시면서도 사회를 보는 예리한 통찰력과 문학·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지니신 분이다. 은혜로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도 깊은 신앙과 사회 체험, 문학적 소양에서 우러난 예술성이 깊이 배어 있었다. 본인은 연동교회의 속사정은 잘 모르나, 장로님께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도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자 조기 은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랫동안 장로님을 뵈며 삼촌 이상으로 존경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약 3개월 전 장로님께서 전화로 집에 들르라 하시기에 건강이 걱정되어 찾아뵈었다. 이야기 중 서재로 가시더니 오래된 족자 그림을 가리키며 오늘 가져가라고 하셨다. 극구 사양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며 그 그림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이 그림은 오래전 연동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위한 바자회를 준비할 때 한 교우분이 기증하신 것이었다. 인사동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선 말기 왕실 화가 오원 장승업(1843-1897)의 꽃게 그림으로 확인되었다.

장승업은 평민 출신으로 왕실 화가에 오른 인물로, 자유분방 한 화풍의 독특한 예술가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 〈취화선〉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작품은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진품이라면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그림이었다. 교회로서는 처분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장로님께서 재료비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신 뒤 집으로 가져와 지금껏 서재에 걸어 두셨다고 한다. 당시 70만 원은 큰돈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장로님의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조용한 헌신이었다.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한다.



지금 이 그림은 본인의 사무실에 조용히 걸려 있지만, 그 안에는 장로님의 잔잔한 웃음이 살아 우리를 바라보며 손짓하고 계신다. 장로님의 신앙의 유산은 연동교회 교인들과 가족들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지난 8월 6일, 고 이재몽 장로님의 오랜 지인이신 새문안교회의 김인흥 은퇴집사님께서 “연못골”에 보내주신 추모글과 꽃게 족자 사진입니다.

9, 10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9	13일(주일)	HI청년공동체 단기선교 보고예배(오후예배시)
	15일(화)-17일(목)	제111회 총회(도림교회)
	16일(수)	연못골찬양대와 함께드리는 수요기도회
	19일(토)	추석합동추모예식(오전 11시, 연동동산)
	30일(수)	오르간 연주회(수요기도회시)
10	1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4일(주일)	성례주일, 입교,세례식(2부)
	11일(주일)	게일학술세미나(오후 3시 본당)
	12일(월) - 14일(수)	창립기념특별새벽기도회(오전 5시 30분, 본당)
	14일(수) - 16일(금)	신앙사경회(오후 7시 30분, 본당)
	17일(토)	교회 대청소, 10기 연동숲속아기학교 입학예배(매주 토 5주간 진행)
	18일(주일)	교회창립 132주년 기념주일, 창립기념 축하음악회(오후예배시)
	21일(수)	YD샌드위치 콘서트(정오 12시, 더게일홀)
	22일(목)	제211회 서울노회
	24일(토)	러브릿지_ON(溫)
	25일(주일)	종교개혁주일, 사랑의 쌀나눔 행사(1), 당회(오후 2시 30분, 위즈덤하우스)
	30일(금)-31일(토)	중보철야기도회
11	1일(주일)	사랑의 쌀나눔 행사(2), 제직회(오후 2시 30분, 본당), HI청년공동체 정기총회
	8일(주일)	초등부 순회예배(3부),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예배(오후예배시)
	15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음악예배(오후예배시)
	19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도회

열정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HI청년들

| 금요기도회





7월 17일과 31일, 8월 21일, 9월 4일과 11일(금)에는 하반기에 새롭게 꾸려진 금요기도회 찬양팀과 함께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9월 11일에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부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어 가나의집 지하 2층 열림홀 오후 7시에 진행되는 기도회 가운데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러브릿지온



7월 18일, 8월 22일, 9월 12일(토)에는 종로 인근 지역 어르신들께로 찾아가 생필품과 먹거리를 나누어 드리며, 따뜻한 안부의 말을 전하는 러브릿지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달 2남선교회, 3여전도회, 3남선교회 각 부서의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뜨거운 햇빛과 비가 그치지 않는 궂은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수련회 중보기도의 밤



여름수련회를 앞둔 8월 11일(화), 가나의집 아가페홀에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부어주실 은혜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 후에는 수련회 조끼리 모여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친교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 풋살 교제



9월 6일(주일), 서경대 풋살 파크에서 풋살 교제를 진행했습니다. 여름 동안 무더운 날씨를 보내고, 오랜만에 진행한 풋살 경기 가운데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리더모임





9월 5일(토), 하반기 리더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7, 8월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기대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각 셀과 팀을 위해 섬기는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반기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여름수련회





8월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2박 3일간 강화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주제로 125명의 청년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을 가득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이후의 삶 속에서도 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선교 보고 예배





9월 13일(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태국과 필리핀 단기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역 내용을 보고하고, 현지에서 선보였던 태권도, 워십 공연과 성해누리, 이수영 자매의 간증을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태국과 필리핀 땅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자!



8월 14일(금)~16일(주일), HI청년공동체는 '끊을 수 없으리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연동강화수양관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많아져 가지만 HI청년들은 수련회에서 조건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러한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길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청년들의 사랑탐구는 수련회 3주 전부터 셀모임 시간과 SNS를 활용해 매주 진행된 Pre-수련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셀원들과 사랑의 정의를 나누고 SNS로 서로를 칭찬하며 사랑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셀모임에서 사랑에 실패한 경험을 나누며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고찰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구절이 적힌 영수증을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해보며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Pre-수련회의 활동들은 수련회에서 재구성되어 <끊을 수 없으리라 : Love calls me>라는 체험형 전시회로 탄생했습니다. 전시는 수양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부터 구예배당까지 이어졌고 Pre-수련회에서 적은 사랑의 정의들을 오브제로 활용해 준비의 시간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질문이 담긴 방명록과 그림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수련회 기간 중 청년들이 자유롭게 전시에 참여하고 묵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한계

Pre-수련회로 준비된 청년들은 2박 3일간 본격적으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탐구했습니다. 사랑의 언어 테스트를 통해 서로의 사랑방식을 알아보고, 조 대항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밸런스게임 토론을 진행하며 사랑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눴습니다. '사랑,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첫날 집회설교는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로서의 인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기도회를 통해 사랑이 부족했던 순간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이후 셀레브레이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둘째 날은 새벽기도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청년들은 자율적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헬롱펠롱 미디어팀이 준비한 '비즈로 비추시네'를 통해 복음비즈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각 조는 미니게임에 도전해 비즈를 획득하고, 조별로 팔찌를 디자인해 만들어 나눠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기억할 '조별템'을 착용하고 사기를 충전한 청년들은 이어지는 '여름아 사랑해'와 '버블 파이터'를 즐겁게 소화했습니다. 물을 활용한 게임들로 흠뻑 젖은 청년들은 이후 빗속에서 물총을 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제직분들이 준비해주신 피자와 간식들도 더해져 배도 든든하고 재밌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후 수련회 하이라이트인 고기 파티로 마지막날 밤은 무르익었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설교 주제로 이어진 집회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사랑을 먼저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조명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진 주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청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각자의 이름이 적힌 편지함을 비치해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일과 중 랜덤으로 쪽지를 뽑아 특정 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등 특별한 소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조장들에게 주어진 셋로그 미션도 이번 수련회의 큰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간대마다 짧은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셋로그 어플을 활용해 수련회 중 청년들의 모습들을 모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프로그램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해 수상을 한 조는 '사랑끈조', 셋로그를 가장 성실히 올려 수상한 조는 '기드온과 11용사들조'였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본 이번 수련회는 모든 프로그램과 말씀이 하나로 잘 융합되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따뜻한 수련회였습니다. / 남다은 기자

스케치 영상

회장단 소감

윤현종 회장: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청년부 안에서도 사랑을 지키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김지원 부회장: 수련회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형준 총무: 수련회에서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보성 부총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데 감사함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강혜원 부총무: 모든 것이 쉽게 끊어지고 깨어지는 시대 속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학교와 직장에, 교회와 사회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강희수 부총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서유니 회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신 것이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동하여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승민 부회계: 끊어지지도 않는 사랑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낀 수련회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사랑처럼 서로 착 달라붙어 있는 하이청년부 되길!

황보예원 서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로마서 말씀을 통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아가고, 수련회 이후에도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구자현 부서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든 진행 중.

담대한 증거의 영성, 팀 티보



미국의 가을은 '미식축구의 계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스타의 영광보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선택한 선수, 팀 티보(Tim Tebow)의 '담대한 증거의 영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팀 티보는 1987년 필리핀 선교사 부모님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임신 중 생명이 위태로웠던 어머니는 굳건한 믿음으로 출산을 택해 티보는 '기적의 아이'로 불렸습니다. 홈스쿨링으로 신앙 훈련을 받았고, 방학마다 부모님의 고아원 사역을 도우며 신앙과 봉사의 뿌리를 다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두각을 나타낸 그는 플로리다 대학교에 진학해 팀을 두 차례 전국 챔피언에 올려놓았고, 2007년 사상 첫 2학년 신분으로 하이즈먼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선교사'로 불리기를 원해 경기마다 눈 밑에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으며 복음을 전했고, 이는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한빛 목사

프로 진출 후에도 회의적 시선이 많았지만, 2010년 덴버 브롱크스에 지명된 그는 세 번째 후보 쿼터백에 불과했지만 팀이 부진에 빠지자 기회를 얻어 2011년 마이애미전에서 0대 15를 연장전 끝에 18대 15로 뒤집었습니다. 이후 7경기 중 6승을 거두며 '미라클 보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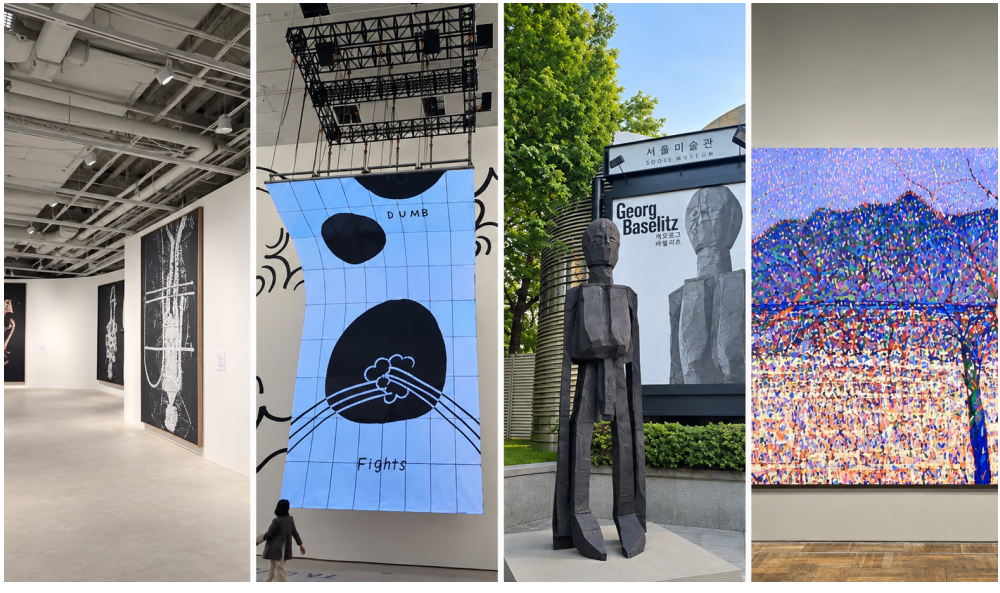


그리고 2012년 1월 8일, 플레이오프에서 피츠버그를 만난 덴버는 연장 11초 만에 80야드 터치다운으로 29대 2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스 총 거리 316야드, 평균 31.6야드, 시청률 31.6%는 그가 눈 밑에 새기고 뛰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맞아떨어졌고, 9천만 명이 이 구절을 검색했습니다. 터치 다운 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티보잉(Tebowing)'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티보는 "미식축구를 잘하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인생의 원동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한 고백은 은퇴 후에도 이어져, '팀 티보 재단'을 세워 '나이트 투 샤인(Night to Shine)' 행사를 전 세계에서 열며 소외된 이웃과 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일깨우고 있습니다. 참된 증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빛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롬 1:16)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종종 믿음을 숨기거나 타협합니다. 팀 티보의 영성은 화려한 웅변이 아니라, 선 자리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용기였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도 삶의 그라운드 위에서 담대히 '믿음의 한 패스'를 던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고백과 정직한 삶이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새기는 통로가 되기를, 십자가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술관에 진심이 되는 가을, 무엇을 보아야 할까?



올 가을은 유독 미술계가 풍성합니다. 서울 곳곳의 미술관과 갤러리에는 거장들의 회고전부터 화제의 신작까지 놓치기 아까운 전시들이 가득해 "이번 가을엔 뭘 봐야 할까?"라는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막상 전시 정보를 접해도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가을 꼭 봐야 할 전시와 관람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Q 이번 가을, 유독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가을에는 유영국, 이대원, 게오르그 바젤리츠처럼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창조해낸 예술적 깊이로 감동을 주는 거장들의 회고전이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유영국 회고전 〈산은 내 안에 있다〉(~10월 25일)는 지난 5월부터 30여만 명의 관람객을 모았고 그의 1971년 작품이 이번 프리즈에서 최고가로 판매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절제된 선과 색채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그의 그림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11월 8일)는 찬란한 빛과 색채의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두 전시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광화문 세화미술관에서는 작년 4월 타계한 바젤리츠의 회고전(~12월 27일)이 열리는데 강렬한 붓질과 대상을 거꾸로 뒤집는 그의 독자적인 조형언어가 앞의 두 전시와는 또 다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김수경 집사
(예술인문학 박사)

Q 삼청동 일대에서는 어떤 전시들을 추천하시나요?

삼청동은 하루 동선으로 소화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서도호 개인전〉이 있고 여러 다른 전시들도 있습니다. '서울박스' 공간에 설치된 김 크리스틴 선의 대형 디지털 벽화는 압도적인 공간감이 주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또한 인근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그녀의 개인전 〈달 마음〉(~10월 18일)에서는 청각장애인 작가로서 소리와 언어, 권력, 사회적 관계, 가족에 대한 사유를 소규모 드로잉과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PKM 갤러리의 〈윤형근을 다시 상상하다〉(~10월 3일)는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작품 30여 점과 함께 작가의 사진, 기록 아카이브를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채의 물감이 지속적으로 고요히 스며들고 있는 그의 캔버스 앞에 서면 그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제갤러리의 박서보 회고전 〈변하는 변하지 않는〉(~10월 24일)과 올여름 연희동에 개관한 박서보미술관의 전시에서는 50여 년에 걸친 그의 작업 속에서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주변 화랑들도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는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 구정아의 〈우스모스〉가 12월 27일까지 열립니다. 금속, 돌, 크리스탈, 목재 등의 재료로 구현된 대형 설치와 드로잉 등 3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공간에 스스로를 맡긴 채 감각이 이끄는 대로 거닐며 감상해 보기를 권합니다.

인근의 페이스, 글래드스톤, 리만 머핀 갤러리와 파운드리 서울에서도 프리드리히 쿠나스, 에드 앳킨스, 카데르 아티아, 율리아 아이오실존 등 해외 작가들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남동 일대의 블루칩 갤러리들에서는 런던, 뉴욕, 베를린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현대 미술의 최근 흐름을 접할 수 있습니다.

Q 전시를 돌아보는 동선을 짤 때 실용적인 팁이 있을까요?

화랑과 미술관이 밀집한 지역별로 묶어서 둘러보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서소문·덕수궁에서 시작해 정동길을 따라 광화문 세화미술관으로 그 다음 주 하루는 삼청동, 주말은 한남동 또는 청담동으로 여유 있게 가을 내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미술관 관람자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미술관과 갤러리들을 둘러보며 안목을 넓히고, 세계 미술 시장에서 활약 중이거나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가들을 만나는 것은 전시 투어의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이때 전시장 안에 마련된 작가와의 대화나 인터뷰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작품에 담긴 의도 및 작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할 한 마디!

"전시장 안에 마련된 작가와의 대화나 인터뷰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남자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
말씀으로 길을 찾는 '라비린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경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남자 성도 여덟 명이 커피와 간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지난 한 달의 일상과 기도 제목을 꺼내놓으면,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입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 웃음도 터지고,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재미있어요."

성경공부를 위해 모였지만 어쩌면 라비린스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공부보다 먼저, '사는 이야기'부터

'라비린스(Labyrinth)'는 미로를 뜻합니다. 인생도 신앙도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지만, 함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김주용 위임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모임은 2024년 1월, 남성 성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이병석 은퇴장로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세대를 잇는 남성 신앙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단체대화방에는 15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50~70대 성도 8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모임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지만, 곧 커피와 간식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추석을 앞두고 이호진 회장이 준비해온 과자 선물세트까지 더해져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신앙 좋은 남자들의 사랑방'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설교 한 편, 질문 하나… 그리고 각자의 삶

올해부터 라비린스는 별도의 교재 대신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날의 질문은 "내가 닮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이재훈 이명은퇴장로는 예수님의 '겸손'을, 김동열 안수집사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강기철 안수집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은 닮을 수 있겠지만 '심판'까지 닮기는 어렵다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호진 장로는 마태복음의 '팔복'을, 이병석 은퇴장로는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보다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지표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장동철 장로에게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새해 아침마다 읽어주셨던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이 오래도록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명식 집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닮고 싶다고 나눴습니다. 답은 저마다 달랐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에게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비린스의 매력은 성경공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까지도 모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참석해온 최명식 집사는 "서로 성찰의 경험을 나누고 신앙의 선배님들 삶을 따라 배우다 보니 제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요"라며, "젊은 남성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 서로 배우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란히 앉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라비린스가 그리고 있는 다음 걸음입니다.

나눔을 마치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은 간식은 사이좋게 나눠 가져갑니다.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길을 잃었을 때 함께 찾아줄 사람이 있는 것. 오늘도 라비린스의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 말씀과 삶을 함께 펼쳐놓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고, 귀 기울이고, 때로는 삶의 지혜도 나눕니다.

신앙 안에서 내 이야기를 편안히 꺼내놓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분이라면 라비린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 모임: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20분~3시경
▶ 장소: 가나의 집 502호 회의실
▶ 회비: 없음
▶ 가입 및 문의: 이병석 은퇴장로(고문)
이호진 장로(회장) 010-5353-1609



“임진석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주방에서 그림자처럼 봉사해온 지난 9년



김주용 목사가 위임받은 2018년 그해에 연동교회 새신자로 등록했다. 교회에 첫발을 내딛던 그날부터 앞치마와 장화를 챙겨 교회 주방으로 발길을 향한 주인공은 올해로 63세인 임진석 집사이다.

교회를 나가지 않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마흔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하며 지내던 임집사는 주변 지인들 권유로 연동교회에 등록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 주방봉사를 손수 나서서 섬겨온 지 어느덧 9년차가 되는 셈이다. 지금은 성북1구역 소속으로 주일에 임집사의 동선은 2부 예배를 드린 뒤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식사정리를 마치는 오후 3시경까지 교우들이 식사하는데 설거지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분주히 움직이며 제일 궂은 일을 도맡아왔다. 식사를 마친 그릇과 잔반 처리, 식당 바닥청소 등 뒷처리를 전담해 왔는데, 성도들에게 간혹 하고픈 말은 봉사하시는 분들을 감사하게 봐 주시고 식사 후 의자정돈, 그릇을 돌려주실 때 자신도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이 봉사가 다른 분들과의 마디(이음)가 되고픈 생각이라고 한다.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손사래를 쳐서 소박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타협하여 겨우 취재가 가능했다. 평소에도 집안에서 가사 분담을 많이 하신다니 몸에 배인 섬김이 교회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합기와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 사업을 하며 가끔은 미자립교회 방송 음향설비로 재능기부도 하고 수리기사로 오랫동안 일하셔서 주일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 사무처 같은 곳에도 자주 가신다고 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가장 좋아한다는 임집사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더니, ‘저를 아는 모든 이가 평온하시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주방 늘 같은 자리에서 교인들의 평안한 식사를 돕고 있는 “임진석 집사님을 크게 칭찬합니다!”/ 진상협 기자

오늘로 이어진 연동교회 132년



연동교회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못골 동네 작은 예배처소에서 자라난 믿음은, 곧 시대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아직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가 남아 있던 1904년, 연동교회는 그 벽을 허물고 한국교회 최초로 천민 출신 고찬익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 평등의 정신은 더 큰 물결로 이어져, 민족이 고통받던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과 근대교육의 한복판에 서서 독립의 목소리와 여성교육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이라는 시련이 지나간 자리, 1954년 다섯 번째 예배당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132년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연동교회의 저력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연동교회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부독재의 어두운 시절, 교회는 정의와 민주화, 평화통일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다짐으로 연동복지원(현 연동복지재단)의 문을 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연동교회가 이해한 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역사의 순간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잠시 멈춰 선 우리 역시, 132년 너머 또 한 페이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9, 10월 전시 담당: 고석주, 박현미 역사위원



위임목사와 함께하는

바이브릿지 II

아빠들의 성경공부

일정 | 9/12, 9/19, 10/17
10/24, 11/14, 11/21 (토요일 총 6회)

시간 | 예비일 새벽기도회 후 (아침 7시-9시)

대상 | 안수집사 및 남자 집사, 남자 성도

회비 | 2만원

교재 |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무료제공)
(정한욱 저, 정은문고)

신청 | 사무처



YBS 가을학기 개강

Youndong Bible Study

2026. 9. 8 ~ 11. 26

YBS 성경낭독반 온라인 매주 화 - 금 오전 6:00 오프라인 매주 토 오전 7:00 | 오한빛 목사
매일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통독하는 성경 낭독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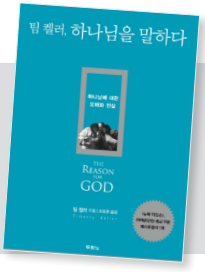
누가의 예수행전 온라인 매주 토 정오 12:00 | 김환 목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며,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교회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구하는 성경공부

소예언서 정복하기 오프라인 매주 수 오후 4:00 | 이진우 목사
소예언서 열두 권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으며, 각 권의 구조와 상호 관계를 살피고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성경공부

전도폭발을 통한 사명 다시 찾기 오프라인 매주 목 오전 10:00 | 이건희 목사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통해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고,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실천하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전도훈련

제자도 : 예수를 따르는 삶 청년부 매주 목 오후 7:00 | 박주안 목사
존 스토트의 『제자도』를 함께 읽으며, 여덟 가지 주제를 통해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고민하는 성경공부

CURRICULUM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

(The Reason for God: Belief in an Age of Skepticism)

팀 켈러 지음 / 최종훈 옮김 / 두란노 / 2017

내면의 회의와 세상의 질문, 그 답을 정직하게 마주하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사람도, 갖지 않은 사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이토록 고통이 넘쳐나는가, 어떻게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가 관용적일 수 있는가,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앙은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닌가. 뉴욕 리디머교회를 개척해 21세기의 C. S. 루이스로 불리는 팀 켈러 목사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는 그 질문들에 대한 15년 목회 현장의 대화를 담아낸 변증서입니다.

이 책은 **파트 1.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파트 2.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곱 가지 질문(배타성, 고통, 속박, 교회의 불의, 심판, 과학, 성경)에 답하며 회의론자들의 질문을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의심 뒤에 놓인 세속적 생각 역시 또 다른 신념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냅니다. 켈러는 책의 출발점에서 신자와 회의주의자 모두에게 같은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확신 뒤에 숨은 '의심'을 직시하고, 자신의 의심 뒤에 숨은 '믿음'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성경과 충돌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문학 장르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4장이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글이라면, 5장은 그 승리를 기뻐하며 부른 시적 표현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창세기 1장 역시 과학 교과서라기보다 창조의 놀라움을 노래한 시적 내러티브로 읽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과 성경이 무조건 대립한다는 선입견을 해체합니다.

책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되는 단서들을 촘촘히 엮어 갑니다. 우주의 정교한 미세조정, 도덕적 확신과 정의감의 뿌리, 초월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 갈망, 그리고 예수 부활을 둘러싼 초기 교회의 역사적 증언까지. 어느 것 하나도 단독으로는 완결된 증명이 되지 못하지만, 켈러는 이 조각들이 함께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믿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률을 넘어 확신에 이르기 위한 인격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천합니다]

o 신앙에 대한 지적인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은 분

o 회의주의자 친구나 가족에게 신앙을 설명할 언어가 필요한 분

o 청소년 자녀, 부모, 조부모가 한 권을 함께 읽고 세대를 넘어 신앙을 주제로 토론하고 싶은 가정

의심을 억누르기보다 끝까지 따라가 볼 때,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이 회의와 확신 사이에서 씨름하는 모든 이에게 정직한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 고현수 기자

심는 것은 우리의 몫,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린도전서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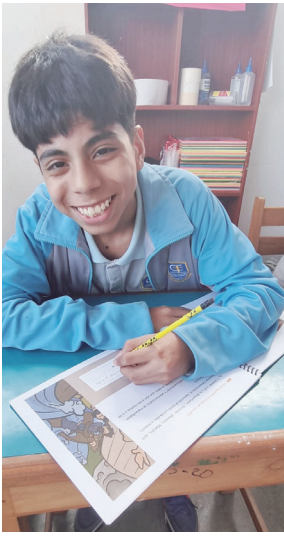
페루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일에서 시작된다. 한 권의 성경교재를 만들고, 한 번의 성경 수업을 준비하고, 한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믿음의 열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안길태·박지원 선교사 가정은 Gozo Eterno 학교와 Selah 사역, 성경학교, '1.1.3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다.

믿음과 꿈이 자라는 Gozo Eterno 학교

'Gozo Eterno'는 '고쏘 에떼르노-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는 Selah 성경교재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신앙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돕고 있다.
안길태 선교사는 학교 운영과 관리, 재정을 맡아 섬기고 있으며, 박화균 선교사와 협력해 학교와 아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학교와 교회, 지교회 어린이 약 250명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열었다. 셀라 교재를 활용해 말씀을 전하고 다양한 활동과 간식, 선물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특별히 LA 나성영락교회 권사들도 함께 섬겨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한 학교, 한 세대, 3년의 말씀 프로젝트

'1.1.3 프로젝트'는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현지 학교에 보급해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개월 동안, 현지 교사가 셀라 교재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역이 Gozo Eterno 학교에 잘 정착되고, 더 나아가 페루의 여러 학교와 교회로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특별수업

학교에서는 미국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온 조미리 선교사와 함께 영어, 한국어, 컴퓨터 방과후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새로운 언어와 기술을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선교사 가정의 자녀 세 인이도 주일학교 보조교사와 찬양팀 바이올린 연주자로 함께 섬기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 Selah 사역

Selah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재와 복음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사역이다. 현재 '사도행전' 유치부 교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교재도 준비 중이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교재 인쇄와 ISBN 발급, 비영리단체 등록도 준비하며 사역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KIDSWORSHIP, 북작북작 출판사와 협력해 수단에서 이집트로 피난 온 AFS 아프리카미래학교 어린이들의 그림과 글을 담은 동화책 12권도 제작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도 씨앗을 심습니다

안길태·박지원 선교사 가정은 오늘도 학교와 교회, 교재 한 장과 한 번의 수업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알 수 없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한 아이에게 심긴 작은 말씀의 씨앗이 한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페루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한다.

/ 페루에서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

정리: 박동진 기자

제주 3박 4일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제주의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계획했던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사님을 만나 상황에 맞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고, 오히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8월 14일(금)부터 17일(월)까지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느꼈으며, 새미은총의 동산과 순례자의 교회 등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새미은총의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길을 표현한 14개의 조각상을 따라 걸으며 해설을 듣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비전트립이란 무엇인가?' 비전트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뿐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청년들에게 삶과 믿음의 조언을 나누고, 서로 다른 세대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전트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지만, 가족은 부족한 부분을 품고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회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비전트립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함께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는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세워주며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어예배반 박점분 목사
WeChat ID : df7135

WIN-Seoul 교회 20주년 감사와 기쁨의 시간





WIN-Seoul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9월 첫째 주일부터 한 달간 이어지는 뜻깊은 기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과 방문객들은 함께 예배드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날 연동교회 다문화선교팀을 섬기고 있는 이건희 목사가 방문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WIN-Seoul 공동체를 격려했습니다. 2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 앞에서 성도들은 작은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20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예배와 교제, 섬김을 통해 수많은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온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준 연동교회에도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동교회가 내어준 따뜻한 공간과 섬김 덕분에 WIN-Seoul 공동체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주년 기념행사는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함께 섬겨온 2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WIN-Seoul 교회와 연동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이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년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걸음.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2~23)



필리핀예배공동체 아벨 목사
Facebook : Abel Raby

〈 영아부 〉 부장 : 박윤신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엡4:32)	여름성경학교 2일차, 교사 인형극, 특별활동(사랑이 톡톡_에어캡놀이)
	19	인사를 잘해요(롬16:16)	월례회&기도회, 반별 나눔(서로 문안하기)
	26	친절하게 대해요(히 13:1-2)	말씀집중주일, 아빠·엄마 끼리끼리 데이
8	2	'하늘, 땅, 바다를 만드셨어요(창 1:1)	반별모임
	9	꽃과 열매를 만드셨어요(창 1:11)	8월 생일 축하(최이언, 박수아, 하은기)
	16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창 1:14a)	반별모임
	23	동물들을 만드셨어요(창1장 25절)	반별모임
	30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라고 하셨어요(창1:28)	어린이부 조예은 전도사님 설교 전함.
9	6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요4:24)	9월 생일 축하(나혜나, 박세준, 정희우), 새친구 환영(김이준, 김이서)

/ 김보성 교사



주기도문송



어린이부 조예은 전도사님 설교



봉헌







8월, 9월 생일 축하(최이언, 정희우,나혜나)



새친구(김이서, 김이준)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여름성경학교(엡4:32)	복음 파르페 만들기
	19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성령님(행10:35)	공과활동
	26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행9:15)	반별 말씀 암송
8	2	우리는 그리스도인(행11:26)	8월 말씀송 배우기
	9	용기 있게 전하는 바울(행17:23)	전도 카드 만들기
	16	끝까지 예수님을 전한 바울(행28:31)	복음 확성기 만들기
	23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행10:2)	예배하는 우리집 카드 만들기
	30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삼상20:17)	위임목사 유아·유치부 순회예배
9	6	함께 자라 가는 어린이(눅2:52)	9월 말씀송 배우기

/ 정윤정 부장



위임목사 유아·유치부 순회예배



복음 확성기 만들기



복음 파르페 만들기



공과활동



파라슈트 놀이

〈 유치부 〉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활동
	19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출 34:6)	7월 생일 잔치/ 성경학교 하이! 하이! 퀴즈
	26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행 9:15)	7월 말씀 암송잔치
8	2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행 11:26)	공과 활동
	9	용기있게 전하는 바울(행 17:23)	8월 생일 잔치/ 재미있는 공과
	16	끝까지 예수님을 전한 바울(행 28:31)	공과 활동
	23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행 10:2)	공과 활동
	30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삼상 20:17)	위임 목사님 순회 예배/ 학보모 간담회
9	6	함께 자라가는 어린이(눅 2:52)	공과 활동

/ 최정미 교사



예배시간 늦지 않아요. 미리 미리 예배 짱!



다음에 꼭! 만나자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항상 행복해요.



교회 오빠미 뽐뿜^^ 친구야



유치부 친구들 사랑해요.(유치부 청년 선생님들)

〈 유년부 〉 부장 : 이현승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행7:55)	28과 복음을 전해요
	19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행10:35)	29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26	여름성경학교(용서받고 사랑하는 GoGo 대모험)	7/24(금)~26(주일), 강화수양관
8	2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행11:26)	8월 생일잔치성경학교 후속활동: 돌아온 고고, 퀴즈대회
	9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전해요!(행17:24~25)	전국 어린이 대회 성경고사 수상(3학년 최원), 32과 가짜?! 진짜!!
	16	담대하게 거침없이!(행28:31)	33과 담대하게 거침없이!
	23	우리는 축복의 통로!(행10:2)	2학년 2반 헌신예배34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요!
	30	친구를 사랑하는 법!(심상20:17)	초등부 조준용 전도사님 설교, 35과 친구야, 사랑해!
9	6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롬12:1)	9/5(토)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회 36과 하니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 민병철 교사



8월 생일잔치


즐거운 성경공부


신나는 찬양율동



전국어린이대회 성경고사 수상(3학년 최원)


3-2반 헌신예배


찬양대로 주님을 섬겨요

〈 초등부 〉 부장 : 김태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흩어진 자리에서 피어난 꽃(행 7:55)	공과 공부
	19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해요!(행 10:35)	공과 공부
	26	너, 예수님이 선택하셨어!(행 9:15)	여름 성경 학교
8	2	함께 불린 이름, 그리스도인!(행 11:26)	공과 공부
	9	진짜 신을 소개합니다!(행 17:24-25)	전국 어린이 종합대회 시상
	16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요!(행 28:31)	공과 공부
	23	모두 함께 믿어요!(행 10:2)	리마인드 성경학교(종이컵 쌓기)
	30	완전 찐친! 인정!(삼상 20:17)	공과 공부
9	6	참된 예배,나의 거룩한 삶!(롬 12:1)	7,8월 생일자 생일잔치

/ 전진석 교사



돌려돌려 생일판, 두근두근 선물 뽑기



종이컵 쌓기 게임으로 되새기는 용서와 사랑



함께 예배드리는 여름성경학교 저녁 집회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만난 새 친구, 서진이



전국어린이종합대회 찬양율동 은상 수상(김소연·이지윤·박소은·하도희)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라” (삼상 18:1)	특별활동 : 말랑이 만들기
	19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삼상 24:15)	특별활동 : 가위바위보 달리기
	26	여름성경학교 휴무	조예은 전도사/윤종훈 부장/교사 2인 강화수양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지원
8	2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요”(삼하 7:9)	특별활동 미니 게임
	9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왕상 3:9)	여름특집 팥빙수 만들기
	16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여름특집 시네마 - 팝콘과 음료, 하반기 AWANA 단원 모집
	23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요”(욥 42:5)	게임 활동, 하반기 AWANA 단원 모집 하반기 AWANA 개강 준비(환경정리, 물품확인), 교사 위로회
	30	어린이부 활동(AWANA 방학) “하나님을 예배해요”(시 146:1-2)	나는야 피구왕! / 어린이부 여름특별활동 출석시상 하반기 AWANA 개강 준비(반편성/물품)
9	6	하반기 AWANA 개강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딤후 2:15)	단체 사진촬영 / 개회식 / Game / 소그룹(성경암송) 대그룹(예배/시상), 총 28명

/ 윤종훈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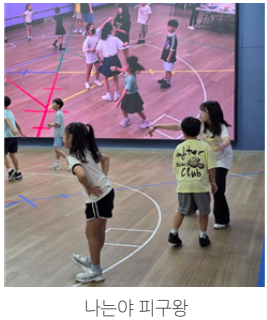
말랑이 만들기



팥빙수 만들기



가위바위보 달리기



나는야 피구왕



어와나 개강식



어와나 2학기 개강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예수천국 불신지옥(행 7:55)	반별 공과 활동, 여름수련회 참가 신청, 세례 입교 학생 축하 7월 생일자 축하, 등하교 심방 프로젝트
	19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행 10:14)	반별 공과 활동, 여름수련회 참가 신청: 7/31(금)-8/2(주일) 청소년 풋살대회 참가 신청: 11/7(토), 예향교회
	26	너로 정했다(행 9:3-15)	여름수련회 안전교육, 예배 장소: 가나의 집 지하 2층 열림홀
8	2	먹었으면 일하자(요 21:15-17)	여름수련회 닫는 예배, 반별 모임, 점심 식사
	9	안 믿는다는 작각(행 17:16-28)	고등부 전소망 전도사님 설교 여름수련회 후속 프로그램, 8월 생일자 축하
	16	오히려 좋아!(행 28:30-31)	영화 "신의약단" 시청, 어노인팅 예배 캠프: 8/15(토), 새은혜교회
	23	착하면 다야?(행 10:1-2)	반별 공과 활동, 세례입교 교육 신청
	30	나와 너 사이(삼상: 20:17)	반별 공과 활동, 자녀 축복 기도회(9/5(토)) 기도 제목 나눔 세례입교 교육 신청 및 교육
9	6	믿음의 후반전(롬 12:1-2)	반별 공과 활동, 세례입교 교육: 8/30(주일)-9/13(주일)

/ 박성윤 부감



중등부 예배 모습



찬양팀



세례 입교 축하식





2부 즐거운 게임 시간



열림홀 영화 시청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행7:54~8:1)	기말고사 끝, 떡볶이 파티~!!
	19	그건 니 생각이고(행10:9~16)	찬양팀 수련회(18~19일), 고2 김주헌 학생 환영(독일)
	26	이왜진(행12:1~12)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수련회 신청
8	2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Go!(행20:22~24)	여름수련회 주제 : LOG IN : 증인의 삶으로 접속하라 (일시 : 7/31~8/2, 장소: 강화수양관)
	9	안 믿는다는 착각(행 17:16~28)	고2 김주헌 학생 환송(독일)
	16	오히려 좋아!(행28:30~31)	영화시청 <<부활 Risen>>
	23	스며드는 것(행10:2)	여름수련회 후기왕 시상식- 대상: 강하늘/ 우수상: 김유나, 김한빛/특별상: 정신영 선생님 한주안 선생님 환영
	30	왕이 되지 않기로 했다(삼상20:17)	세례문답교육 1주차
9	6	공부해서 남 주나(행2:1~4)	네팔 라수와 지역 산사태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봉헌 세례문답교육 2주차, 교사월례회(수련회 평가회)

/ 이승원 부감



스승의날 감사, 기말고사 끝, 떡볶이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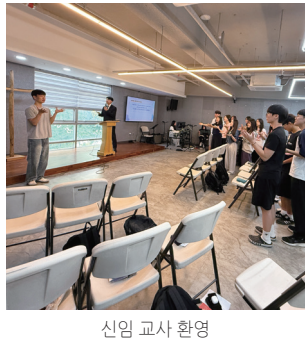
찬양팀 수련회 1



찬양팀 수련회 2



고2 김주헌 학생 환송(독일)



신임 교사 환영



여름수련회 후기왕 시상식

하나님 사랑 HI! HI!, 영아부


주제 말씀 교사 손인형극 '사랑하는 우리 하이하이'

주제 : 하나님 사랑 HI! HI!(엡 4:32)
일시 : 7월 11일(토)~12일(주일)
장소 :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
참석자 : 학생 14명, 부모님 24명 / 교사 15명
봉사자 : 고서현·김경민 청년, 최경희 권사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사랑 부채'를 만들고 알록달록한 종이를 날리며 '용서의 바람'을 표현했고 뽕망치로 에어캡을 터뜨리고, 발로 밟으며 뻥튀기가 나눠지고 알록달록 물감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표현해보았다. 여기에 '영아부 맞춤형 물놀이'까지 더해져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교사들의 손인형극 '사랑하는 우리 HI! HI!'로 전하였다.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 준비와 교사로 섬겨 주시며, 사전 준비부터 모든 일정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모든 순간을 은혜로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영아부가 되기를 기도한다. / 김보성 교사


하나님 사랑이 톡톡


알록달록 온 세상에 퍼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사랑이 톡톡_물감(사랑)아 멀리멀리 퍼져라


물놀이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

하나님 사랑, 유아부 사랑, 하이하이

주제 :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
일정 : 7월 11일(토)~12일(주일)
장소 : 가나의집 2층 유아부실
참석 : 학생 17명 / 교사 13명
봉사자 : 심현희 성도


즐거운 공과시간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아이들의 기도카드로 기도와 응원으로 여름성경학교 시작하였다. 주제 말씀 따라 말씀을 배우고 다양한 코너학습으로 신나게 뛰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한 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선생님과의 친밀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가 되었다.
더운 여름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과 봉사자 여러분, 기도와 봉헌으로 도움 주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 사고 없이 좋은 환경과 날씨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정윤정 부장


주제활동


코너학습


두 손 모아 기도준비


즐거운 물놀이


단체사진

유치부의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주제 :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일정 : 7월 11일(토)~12일(주일)
장소 : 가나의 집 2층
참석 : 어린이 25명 / 교사 15명
봉사자: 오영순·최은복·장미연 권사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를 주제로 열린 여름성경학교가 즐거움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새롭게 배운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따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담고,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도 경험했다. 즐겁게 뛰놀고 찬양하며 한층 더 가까워진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던 시간이었다.

/ 최정미 교사


연동워터피아 오신 걸 환영해요


여름성경학교 진지하게 예배드려요


누가 누가 높이 보낼까요?


함께하는 우리 잡은 손 놓치 않아요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연동교회 유치부 파이팅!

용서받고 사랑하는 '유년부'

주제 : 용서받고 사랑하고 Go, Go 대모험
일정 : 7월 24일(금) ~ 26일(주일)
장소 : 강화수양관
참석 : 학생 33명 / 교사 16명
봉사자 : 황순진 지도권사, 최경희·박혜란·이경희·조수남·라신현·김선희 권사, 조예은 전도사, 윤종훈 안수집사, 최태인·민다은·김나연·황보예원·조형준·김민성·김보성·서호석·김성진·김세라 청년

유년부 어린이들은 사흘 간의 여름성경학교 동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이 좋고 싫고 관계없이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도 크게 자라났다. '유년부'라는 주님의 공동체 아래 모인 어린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다. 좋은 환경과 날씨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감사드린다. / 민병철 교사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찬양해요



성경공부 후 간식을 함께 나눠요



친구들과 놀면서 친해지는 시간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하는 연동 유년부!

용서받고 사랑하고 GoGo! 대모험을 떠난 '초등부'

주제 : 용서받고 사랑하고 GoGo 대모험
일정 : 7월 24일(금)~26일(주일)
장소 : 강화 수양관
참석 : 학생 34명/교사 14명
봉사자 : 조예은 전도사, 윤종훈 안수집사, 김선희·원영숙·김남순·유정원·강희숙·장진경 권사, 양진실·김희전·김승규 집사, 백진주·송하람·오민택·정윤성·정지수 청년


신나는 물놀이로 GoGo

우선 은혜 가운데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용서받고 사랑하고 GoGo 대모험'을 주제로 공과공부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이름표 교환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센터학습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공과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배웠다. 둘째 날에는 언어교육과 공과공부, 기도회를 이어가며 말씀을 되새기고 물놀이와 라디오 시간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첫째 날부터 달란트 시장을 운영하여 달란트로 키캡키링 만들기와 과자, 간식 등을 직접 선택하는 즐거움을 더했다. 아이들은 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며 말씀을 통해 배운 용서와 사랑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말씀과 사랑이 아이들의 일상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전진석 교사


찬양율동 힘차게 GoGo


달란트로 고르Go 키캡 만들Go


다함께 센터학습으로 GoGo


마음을 나누Go 사랑을 배우Go



목사님, 장로님도 함께 GoGo

주님의 식탁에 사랑으로 모인 '중등부' 친구들

주제: Come to the Table
일정: 7월 31일(금)-8월 2일(주일)
장소: 강화수양관
참석: 학생 32명, 교사(중등부 교사와 섬김이) 32명
봉사자: 식사와 간식 - 여명선 장로, 원천숙 권사, 양진실·김소연·박성미 집사
그 외 백진주·안영찬·김태양·송하람·윤주원·여동훈·오민택·한준형·강하니·홍혜림 청년, 정윤석 안수집사, 남득현 집사


둘째 날 야식 타임

하루 먼저 수련회 문을 열었다. 찬양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수련회 시작 하루 전날인 7월 30일(목)에 먼저 강화수양관에 도착하여 수련회를 더욱 은혜롭게 만들어 줄 음향기기 세팅과 찬양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친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되었다. 저녁 예배와 기도회 시간을 통해 '다시 초대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코너학습

둘째 날, 게임으로 알아가는 말씀 공부와 수영장에서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저녁 예배는 고등부와 함께 드렸다. 중등부 장판규 전도사와 고등부 전소망 전도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회 시간을 인도하였다.

셋째 날, 모두 몸은 힘들지만 성령 충만하여 연동교회에서 주님께 감사의 닫는 예배를 드렸다. / 박성윤 부감


수영장에서


중고등부 연합예배 시간



단체사진

증인의 삶으로 접속한 '고등부'

주제 : LOG-IN : 증인의 삶으로 접속하라(행1:8)
일정 : 7월 31일(금)~ 8월 2일(주일)
장소 : 강화수양관
참석 : 학생 28명, 교사 22명, 봉사자 9명(총 59명)
봉사자 : 김예주·이미열 권사, 박연숙·이은영·조형욱 집사
김민준·김보성·김연후·한주안 청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증인의 자리가 다름 아닌 '매일의 일상'임을 깊이 깨달았다. 가정과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선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상의 증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을 넘어, 미움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소외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손 내미는 용기 있는 증인이 되기를 다짐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세상 속으로 담대히 파송되어 나아간다. 청소년기를 넘어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묵히 증명해내는 '멈추지 않는 증인'으로 굳건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이승원 부감

강하늘 - 찬양집회를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되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르는 사람임에도 축복해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최가은 -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김주헌 -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
전하은 -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둘째 날 중고등부 연합 집회


세족식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두근두근 선교여행)



단체 사진

주니어앙상블 여름수련회

일정 : 8월 6일(목)~8월(토)
장소 : 대부도 그랑비치펜션
참여 : 학생 7명 / 교사 2명
봉사자 : 김수연2·이은영·임경선 집사, 육기돈 청년


아침산책

주니어앙상블(지휘 김진환 집사, 단장 김선일 집사)은 2박 3일간 대부도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하였다. 합주와 파트별 연습을 통해 부족했던 연주를 보완하고, 말씀과 기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습이 끝난 후에는 물놀이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며 마음껏 웃고 즐겼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도 수련회의 큰 즐거움이었다. 삼시세끼를 김수연, 이은영, 임경선 집사님께서 정성껏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주셔서 단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수련회가 되었다.
또한 OB 청년이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연습하고 지도하며 단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 시절 주니어앙상블에서 함께했던 선배가 후배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단원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며, 주니어앙상블의 따뜻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미래세대부 부장 여명선 장로, 차장 김찬진 장로, 지도목사 오한빛 목사가 방문하셔서 단원들을 격려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셨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단원들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섬기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주니어앙상블이 되기를 기대한다.

/ 단장 김선일 집사


목사님과 장로님의 격려 방문


연습시간


즐거운 물놀이


단체 사진

전국 어린이대회



제35회 전국어린이대회가 8월 4일(화)에 충성교회(대구시 달서구 소재)에서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의 주최로 열렸다. 여는 예배는 최현수 장로(연합회 수석부회장, 연동교회)의 인도로 시작하여 충성교회 조이중창단의 특송 후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사야 49:5~6)이라는 제목으로 김철민 목사(총회 교육자원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온 땅의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제창한 후,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대회는 대회사, 축사, 격려사, 대회선언, 대회선서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연동교회는 성경고사와 찬양율동 종목에 참가했다. 강북협의회 서울노회 대표로 참가한 성경고사 부문의 최원 학생은 동상을, 찬양율동 부문의 김소연·이지윤·박소은·하도희 학생은 은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어린이대회를 마치기까지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5월 9일)와 서울시 어린이종합대회(7월 4일)에 참가했던 모든 학생들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 및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모든 대회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양진실 기자

종목	학년	이름	수상
성경고사	3학년	최원	동상
찬양율동	5학년	김소연, 이지윤	은상
	6학년	박소은, 하도희	

11월, 교구별 한마음 탁구대회가 열립니다!



가. 대회명: 2026학년도 연동교회 교구별 한마음 탁구대회

나. 대회기간

① 본선 경기: 11월 21일(토) 오전 9시

② 예선 경기: 10월 3일(토) ~ 11월 20일(금)

다. 대회종목: 단체 복식전(남복, 여복, 혼복) 경기 운영

라. 대상: 연동교회 등록 교인(19세 이상 성인)

마. 대회장소: 연동교회 가나의 집 열림홀(지하 2층)

바. 대회방법: 교구별 예선 경기를 거쳐 교구 대표가 본선대회 실시

※ 기존 5개 교구와 HI청년공동체를 포함하여 총 6개 팀 출전

사. 주최: 연동교회 문화선교부

아. 주관: 연동교회 탁구선교회

자. 참가자격: 연동교회 교인 ① 현재 연동교회에 등록된 교인(1~ 5교구) ② HI청년공동체

차. 본선 경기 참가 신청(참가신청 마감일 반드시 준수): 11월 9일(월)까지

카. 참가신청 방법: 교구별 담당 목사 및 총무

타. 시상 1) 단체전: 각 순위별 상금 및 트로피 수여 예정

파. 부득이한 경우로 대회 일시가 변동될 경우, 추후 재 안내

경기 진행 및 행정 사항

가. 경기 방법

1) 교구별 예선 경기 및 본선 경기는 리그전으로 진행한다.

2) 교구별 예선 경기 일정은 교구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심판 배정 포함)

※ 교구별 예선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단, 11월 2주까지는 끝내야 함).

※ 교구별 담당 목사님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구	일시	비고
1교구	10월 3일(토), 09:00~16:00	•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대표 선수 선발 • 경기 방식: 1게임 3세트제 승리 조건: 2세트를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 • 1세트: 11포인트제로 한다.
2교구	10월 10일(토), 09:00~16:00	
3교구	10월 17일(토), 09:00~16:00	
4교구	10월 24일(토), 09:00~16:00	
5교구	10월 31일(토), 09:00~16:00	
HI청년공동체	11월 7일(토), 09:00~16:00	

2026 게일학술세미나



일정: 2026년 10월 11일(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 본당)

주제: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본 제임스 게일의 선교와 목회**

강사: 이병옥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Luther Seminary(Th.M / Ph.D)

논찬: 김주용 위임목사

왓두유뽀리빙

한국어로 이어지는 연동 울타리

연동 한국어교실에서 만난 김승애 집사와 제프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 가운데 하나는 '언어'다.
장을 보고, 길을 묻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말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대화를 시작하면 낯선 곳은
조금씩 '살아갈 곳'이 되어간다.

연동교회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외국인 성도들의 이러한 여정을 돕는
'연동한국어교실'이 있다.



연동교회 안에서 시작된 한국어교실

연동한국어교실은 2025년 시작됐다.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김승애 집사(비전2구역)와 연세대학교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3명이 뜻을 모아 강사로 참여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다.첫해에는 연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필리핀과 중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배우는 단체수업과 함께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과 필요에 맞춘 개별수업도 병행했다. 한국어교실에서 배우는 것은 단어나 문법만이 아니다. 장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생활의 언어'를 배운다. 김승애 집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단순한 언어교육에 머물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낯선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외국인 성도들의 곁을 함께 걷는 섬김이다. 그리고 그 교실에서 필리핀에서 온 한 청년, 제프를 만났다.

필리핀에서 온 제프

제프(Jefelyn Ann Jallorina)는 필리핀 루손섬 라우니온(La Union) 출신으로, 한국에서 생활한 지 약 10개월 됐다. 현재 용산구 서빙고로에서 일하며 연동교회 필리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제프는 전자회로와 하드웨어, 로봇 제작 등을 공부했다. 현재의 일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다음 목표는 한국에서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한국어'였다.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제프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어요. 한국의 생활방식과 문화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아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생활 표현을 익히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제프에게 연동한국어교실은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배우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국 사람과 직접 이야기하며 '살아 있는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적과 세대를 넘어 만나는 연동교회

제프는 연동교회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연동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줍니다. 필리핀 공동체뿐 아니라 한국인 성도들도 만날 수 있고, 청년부터 어른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프에게 연동교회는 필리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넘어, 국적과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어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을 잇는 한국어

연동 한국어교실은 김승애 집사와 제프(필리핀), 송정아 집사와 에스겔(인도네시아), 이충호 집사와 따라뤼인(미얀마), Christine(왕자정/대만), 백현홍 집사와 전풍(중국) 그리고 박혜란 권사와 임삭훤(중국)이 개별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가고 있다. 서로 다른 나라와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마주 앉아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친다. 선생님과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수업이 이어지면서 서로의 삶을 묻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간다.

제프에게 한국어는 한국 생활을 위한 언어이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언어다. 한국어를 익혀 대학원에 진학하고, 언젠가는 컴퓨터공학과 로봇·하드웨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김승애 집사가 건네는 한국어 한마디와 제프가 용기를 내어 답하는 한국어 한마디. 그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여간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만, 중국 그리고 한국.

한국어 한마디로 시작된 만남이 국적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우리'로 이어주고 있다.

세종대왕께 감사하고! 우리 승애와 우리 제프와 함께한 "왓두유뽀리빙" 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마케터 윤현종 청년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두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영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경영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도 이러한 관심을 따라 일본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글로벌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는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선택해 온 걸까?',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온 선택들을 후회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 12월,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그동안의 경험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많고, 지나온 선택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거나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졌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던 것

처럼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경험과 능력을 잘 사용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저처럼 진로를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그런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는 조금씩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안하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의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험과 선택들이 당장에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와 비슷한 분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윤현종 (☎010-9079-5981)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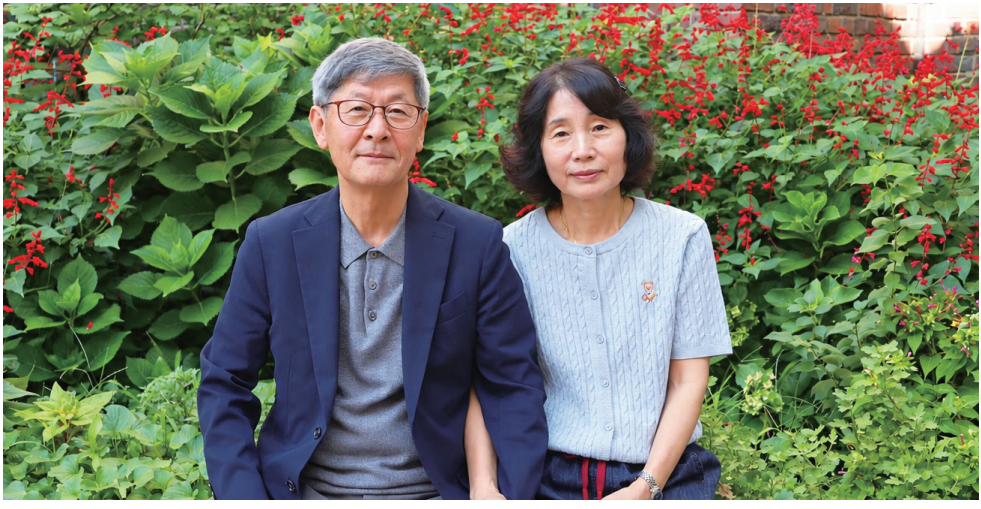






30년 해외생활을 마치고 연동에 닻을 내린

김남구·이종희 성도 부부



은퇴와 함께 30여 년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김남구, 이종희 성도 부부(한신1구역). 익숙함과 생소함이 교차하는 한국 땅에서 이들의 발걸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연동교회와 함께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오랜 중보기도로 시작된 신앙생활

김남구·이종희 성도 부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주재원으로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부부는 타국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한 친구 부부의 진심 어린 전도와 중보기도를 통해 2007년부터 뉴저지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0세가 넘은 나이에 접한 복음이었지만, 김남구 성도는 "누군가 오래도록 자신을 위해 무릎 꿇어 왔다는 사실이 신앙의 첫걸음을 떼게 한 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이어진 인연, 연동교회로 향한 발걸음

은퇴 후 귀국을 결정하면서 부부가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정착할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정착해야 할까' 고민하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이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희진1 권사(한신1구역)였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같은 회사 주재원으로 함께 지내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떨어져 지내면서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서로를 챙기며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다시 연락이 닿은 김희진1 권사는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세심히 도와주었고, "특별히 마음에 둔 곳이 없다면 연동교회를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에 따라 지난해 10월 초 연동교회에 첫 발을 디뎠고 그해 12월 말에 새가족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130여 년의 울림, 가족처럼 편안했던 자리

처음 연동교회 예배당에 앉았을 때 부부가 느낀 감정은 편안함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음에도 오랫동안 다녔던 곳처럼 마음이 안정되었고, 130여 년이라는 깊은 역사 속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품격과 온기가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김남구 성도는 "연동교회가 갖바치들 마을에서 시작되어 천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초기 역사를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낮은 곳을 향했던 교회의 첫 마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과, 할아버지와 아들, 손주가 나란히 한 예배당에 앉아 있는 풍경에서 느낀 가족 같은 온기, 마음 깊이 와 닿는 목사님 설교까지 더해지면서, 부부는 자연스레 연동교회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쉼표 같은 시간, 말씀으로 채우는 나날

미국 교회에서 재정부 봉사와 찬양대(김남구 성도 베이스, 이종희 성도 소프라노)를 섬겼던 부부는, 현재 연동교회에서 차분히 영적 쉼을 누리며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맞이한 삶의 전환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워가는 중입니다. 현재 교회의 '데바레카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일독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내년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경공부 강좌에도 참여해 교우들과의 교제를 넓혀갈 마음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딸을 향한 기도

부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타인에게 위로를 전하며 늙어가고 싶습니다."

연동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환대 덕분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부부에게 한 가지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딸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타지에서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부부이기에 딸을 향한 기도 역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부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의 진정성 있는 말씀에서 매주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 쉼을 누리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두 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현미 편집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 전도활동팀(팀장 윤영란 권사)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연동의 성도들이 가족과 친구, 친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전도훈련과 전도지와 전도용 키트 등으로 연동교회 성도들의 전도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주님 뜻과 명령대로 일상에서 기도와 복음 전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계절, 함께 드리는 기도

전쟁과 재난 · 입시 · 일터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

국내외 곳곳의 전쟁과 재난 소식, 눈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일터의 형편들-- 지금 이 계절 우리 곁의 이웃과 성도들을 품고 함께 아래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임재철 기자

1. 전쟁과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시라."(시편 46:1)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보시고 그곳에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피난민이 된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서로 분쟁을 멈추고 정의와 자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 주시며, 저희 자신을 포함한 온 나라가 이웃 나라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도움이 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 중에 계시는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빌립보서 4:6-7)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의 압박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공부하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해주시고, 결과를 따라 조마조마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옵소서.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인격이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자녀들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

"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위에 위엄을 빛내시며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시편 90:17)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만이 아시니 오늘도 그 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업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할 자리와 힘을 허락하시며, 사업의 판단에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솔직과 신뢰의 은혜를 채워 주시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묵묵히 견디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맡은 권사들의 복장 변화



복장이 변경된 첫 날(7월 19일 주일 1부예배) 바지 정장을 착용하고 성경 봉독한 박현숙 권사(우)와 이날 1부 예배 기도를 맡은 박은화 장로(좌)

7월 19일(주일) 1부예배부터 성경 봉독을 맡은 권사들의 복장이 한복에서 바지 정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예배 진행의 활동성, 권사들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부터 한복 복장 변경에 대해 당회와 권사회가 여러 차례 깊이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보다 단정하면서도 활동하기 편한 바지 정장으로 복장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 복장은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한복 착용 49주년을 맞는 11월 첫 주부터 바지 정장을 공식 복장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1977년 11월 6일 주일 예배부터 권사들이 한복을 입고 단 위에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온 만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을 내려놓는 데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복의 형태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전하는 권사들의 마음과 자세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복장 속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권사들의 경건한 마음과 은혜가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선희2 권사(권사회 회장)

*7월 19일부터 성경 봉독을 맡은 권사들은 다음과 같은 복장을 착용합니다.

상의: 검정 또는 네이비 재킷 / 이너: 흰색 티셔츠 또는 흰색 블라우스/ 하의: 단정한 바지

신발: 단정한 구두/ 성례주일에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이단·사이비 경계주간을 맞아 마당행사와 세미나 개최



7월 26일(주일)과 8월 2일(주일), 이단사이비대책팀(팀장 박재연 권사)은 총회 주관 이단·사이비 경계주간을 맞아 이단사이비 예방과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한 마당행사 및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7월 26일 오후예배에서 진행된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는 정윤석 목사(기독교포털뉴스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텔레비전과 유튜브를 통해 자주 접하는 연예인들이 이단·사이비 교단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이단·사이비가 접근하는 방법과 미혹하는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당행사에서는 이단들의 활동을 알리는 패널을 전시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이단의 접근을 받고 있는지 설문을 받으며 차 대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날 이단·사이비 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분별력과 이단·사이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이단·사이비의 주요 교리와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이단·사이비 집단의 접근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나눔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세우고, 130년을 넘어선 연동교회가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본이 될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박재연 권사(이단사이비대책팀 팀장)

2026년 환경선교사 과정, 창조세계를 돌보는 신앙을 배우다



6월 13일(토)부터 7월 18일(토)까지 2026년 환경선교사 과정이 5주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7월 25일(토) 예비일 새벽기도회에서 특송을 부른 후, 드보라의 방에서 수료식을 갖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에는 타교인 3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19명(타교인 2명 포함)이 수료했다. 환경선교사 과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지켜가기 위해, 일상과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으로, 사회봉사부(부장 강철민 장로) 환경보전팀(팀장 민홍기 안수집사)과 기독교환경교육센터가 협력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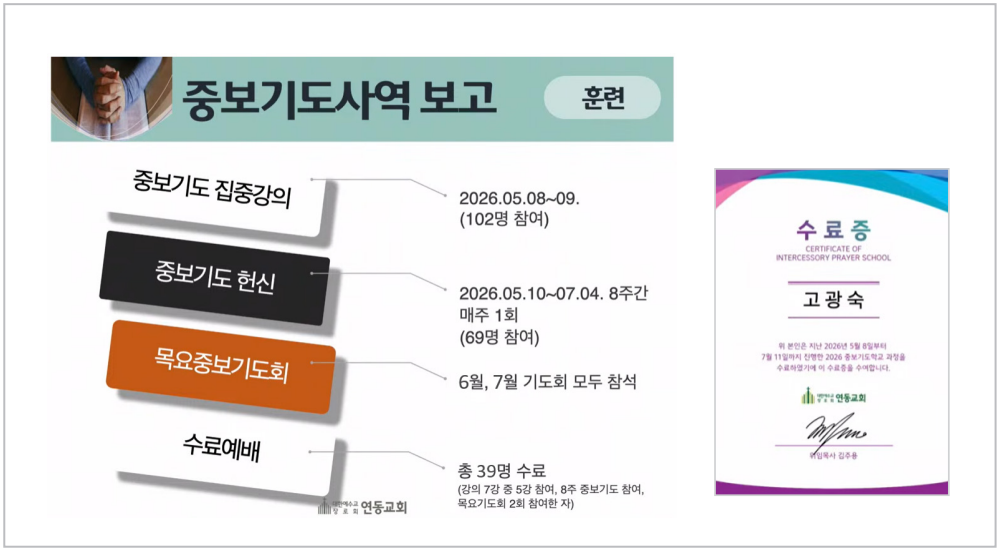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일상의 작은 실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사명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번 과정에서의 나눔, 배움, 다짐 들이 각자의 삶과 가정, 교회 안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살리고 지켜내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 민홍기 안수집사(환경보전팀장)

[수료자](직분 생략, 가나다순): 강철민, 권은경, 김수연2, 김영호, 김이선, 김종은, 노순규, 민홍기, 박현숙, 송상경, 양진실, 여명선, 오영순, 이상숙, 주성경, 최계숙, 최기열, 최문경, 한상정(19명)

〈수료자 소감〉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하늘과 나무, 계절마다 피어나는 작은 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내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이제는 피조물의 탄식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거창한 사명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감사히 바라보고 작은 것부터 정성껏 돌보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자연을 살리는 사람이기 전에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가겠습니다./ 송상경 안수집사(연희홍제구역)

중보기도학교 수료예배



7월 19일(주일) 오후예배는 중보기도학교 수료예배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심현숙 장로(목양위 부위원장)의 인도로 원영숙 권사(중보기도팀 팀장)의 기도와 박정희 집사(중보기도팀 서기)의 성경봉독이 있은 후, '파수꾼의 사명'(이사야 62:6-12)이라는 제목으로 이진우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서 이대진 권사(중보기도팀 총무)가 학사보고를 하고, 고광숙 공로권사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다. 중보기도학교의 학사 일정은 5월 8일(금)과 9일(토) 양일간 박춘광 목사·박성훈 목사(신동탄지구촌교회)의 '중보기도 집중강의'로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되었고, 강의 중에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집중강의에 참여한 분들은 5월 10일(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8주 동안, 주 1회 1시간씩 개인 '릴레이기도' 시간을 정해서 강의 시간에 받은 108개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기도로 헌신하였다. 그리고 6월 4일과 7월 2일에 있었던 '목요중보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였다. 이렇게 교육과 중보기도학교 과정을 모두 마친 39명이 이날 예배시간에 수료하게 되었다. 집중강의에 참여한 분들은 5월 10일(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8주 동안, 주 1회 1시간씩 개인 '릴레이기도' 시간을 정해서 강의 시간에 받은 108개의 기도 제목을 위해 중보기도로 헌신하였다. 그리고 6월 4일과 7월 2일에 있었던 '목요중보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였다. 학사보고 및 수료증 수여식 후에 김이선 권사가 중보기도학교에 대한 은혜로운 간증을 발표하였고,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전체가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을 특송으로 부른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026년 '중보기도학교'는 강의 참석, 요일별 기도 개근 출석, 6월·7월 목요기도회 출석의 2개월 간의 중보기도 교육과 훈련으로 마쳤지만, 앞으로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 양진실 기자



중보기도학교 수료예배 특송

〈간증문〉



김이선 권사
(한신1구역)

'연동 중보기도학교'는 항존직이라면 필수 등록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고민없이 참가하게 되었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비마다 양가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너무나 크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에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아 이제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할 차례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두 분의 강사 목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누어주시는 사역'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시작으로,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실 때에는 이제 정말 중보기도를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겠다는 벅찬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팀을 이루어 중보기도실습을 했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보기도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팀과 팀이 연합해나가면서 나중에는 참가자 전체가 큰 원으로 본당 가득히 하나로 연결될 때는 성령님 안에서 순식간에 하나가 된 영적 친밀감을 느끼며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8주간에 걸친 약정기도훈련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매주 약속한 그 한 시간은 오롯이 혼자서 하는 기도이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중보기도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1시간이 마냥 짧게만 느껴졌고,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위한 누군가의 소박한 기도제목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긴급한 기도제목에는 릴레이로 꾸준한 기도가 계속되면서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며 응답되어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본당 정면에 스테인드글라스를 보시면 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오른쪽 아래, 십자가 바로 옆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이렇게 기도의 옥합에 가득히 담겨져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 영으로 중보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스테인드글라스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 이렇게 멋진 우리 교회의 명물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가 차곡차곡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더욱 아름다운 연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방 청소 및 주방 방역 작업

8월 1일(토) 친교부(부장 김이순 장로) 식당운영팀(팀장 김선희2 권사)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교회 주방관리를 위해 직분과 상관없이 대규모로 한 마음이 되어 주방 청소를 진행했다. 8월 10일(월)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주방 구석구석 방역 용역청소를 실시했다.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여름철, 주방의 위생상태를 믿고 교우들이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진상협 기자





제1남선교회 건강특강



8월 9일(일) 1부예배 후 제1남선교회(회장 박재천 장로) 주관으로 베들레헴예배실에서 김종원 집사(외과-위장질환 전문의)의 위암예방 “건강한 위를 위해”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위암은 남녀 전체 암 발생 순위 5위(남자 3위, 여자 5위, 2023년 기준)로 발생빈도가 높은 암질환으로, 위암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위암의 치료 및 후유증상에 대한 안내와 위암 예방과 위암 조기발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많은 질의 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에 답해 주었으며, 베들레헴예배실에 가득하게 모인 참석자의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 안창익 안수집사(제1남선교회 총무)

세계선교위원회 정기 회의



8월 9일(주일)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김이순 장로, 이하 세선)는 교회 인근 파스쿠치 카페 회의실에서 정기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첫 안건은 선교지 후원 연장심사로 대상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후원 연장이 의결되었다. 이후 N국의 탁아소 재건사업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노후 붕괴된 탁아소를 다시 짓는데 그 재원으로 연동의 누적된 후원이 주로 사용된 의미있는 사업으로 해당 공사는 9월 이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송요한 선교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주 후원 선교사의 지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영국 개혁교단(URC)과 현지 브리스톨 교회는 연동교회에 후속 선교사 파송을 기대하고 있으며, 브리스톨 한인 교회의 서기장로가 8월에 연동교회를 방문하고 세선 임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청빙 등의 제반 절차가 검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에서는 향후 필요를 대비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금년 하반기 세선 특별봉헌 준비 및 서울노회 세계선교대회 후원 등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있었으며, 2027년 사업에 대한 준비를 임원진이 9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7년 초 주요 일정은 올해 원포인트 후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중남미 지역 선교지를 방문하는 비전트립이다. 일정은 2027년 2월1일(월)-13일(토)이며 페루, 코스타리카, 브라질 3개국으로 연동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참가자 모집 중이다. / 윤종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2026년 상반기 결산 감사 실시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일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장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하우스에서 2026년 상반기 결산 감사를 실시하였다. 제직회 각 부서 및 자치기관의 회계 담당자가 사무처에서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받아 회계장부, 통장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돌아가면, 감사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대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수입·지출의 증빙과 절차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회계 절차의 미숙함으로 발생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안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 고현수 기자

직장인 섬김 및 새학기 응원 전도활동



8월 27일(목) 오전 8시부터 국내선교부(부장 이호진 장로) 직장인예배팀(팀장 이규진 안수집사)과 청소년주일학교(교장 여명선 장로) 어린이전도단(단장 양진실 집사)은 교회 앞에서 커피와 음료, 초코파이와 전도지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 계대윤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행사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섬기고,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하며 응원했다. 전도활동팀(팀장 윤영란 권사)과 함께 전도폭발전도지(휴대용 휴지)를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간단하게 준비했던 간식은 금세 동이 났고, 봄에 먹었던 붕어빵과 군고구마를 기억하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다. 청소년주일학교에서는 작은 선물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들이 나눔과 전도활동을 했다. / 김종은 기자

연못골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수요기도회



9월 16일(수) 수요기도회는 특별히 연못골 찬양대(지휘: 진화신, 오르간: 신기루, 피아노: 이지원)가 주관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이로써 2026년에 특별히 기획된 '찬양대와 함께하는 세 번의 수요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수요기도회는 찬양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음악이 곧 기도가 되는 예배를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르간·중창·합창·해금 등 다양한 음악을 통해 감사와 믿음, 사명과 소망을 나누고, 성도와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기도와 소망의 찬양으로 마무리하여,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함께 참여하며 찬송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화신 집사(연못골찬양대 지휘자)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노래하며, 기도로 하나되는 예배>

오르간연주 Fanfare on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 Organ 신기루
중창 You Raise Me Up ····· Sop. 강지혜 김다은 Alto. 심승효 Ten. 정상운 Bar. 김상배
합창 샤론의 꽃 예수 (Descant : 강지혜) ····· 연못골찬양대
해금 & 합창 사명 (해금 : 채수경) ····· 연못골찬양대
합창 찬양(Drum 유기정 Synthesiser 이은미 Bass 최현수 E.guitar 윤병익)
행복 / 충만 / 물이 바다 덮음 같이 /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 찬양대와 회중
합창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 연못골찬양대
합창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 연못골찬양대

연동교회
중남미 선교지 방문

함께 꿈꾸는 선교의 발걸음

일시

2027년 2월 1일(월) ~ 13일(토)
(12박 13일)

방문지역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문의 : 선교비전팀장 **정영희 권사** (010-3059-4475)

가정의 대화를 바꾼 하루, ‘YD 패밀리 코칭 페스티벌’

개인·부부 등 39명 참가… “경청과 존중이 가정을 살린다”





9월 5일(토) 베들레헴예배실에서 'YD 패밀리 코칭 페스티벌'이 열렸다. 상담팀(팀장 이혜석 권사)·새가정부(부장 박승란 권사)·기독교가치관교육팀(팀장 박미경 권사)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개인 참가자와 11쌍의 부부 등 총 39명이 참가했다. 상담팀의 이혜석 팀장은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부터 먼저 다루기로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부 특강(코칭으로 배우는 건강한 가족 의사소통기술), 2부 그룹별 워크샵으로 진행되었다.

“이미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1부 특강을 맡은 이명진 공로권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경청하며, 답은 상대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질문하고, 피드백은 상대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 방식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칭의 최고 가치는 존중"이라며, 상대가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 대화 vs 코칭 대화, 직접 부딪혀본 실습

2부 그룹별 워크숍에서는 부부간·부모-자녀간 시나리오로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를 번갈아 실습했다. 예비부부로 참가한 윤준형 씨는 "앞으로 예전 같은 대화는 안 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고, 예비 신부인 김지수 씨는 "결혼 생활의 시작으로 의사소통부터 배우게 되어 다행"이라며 인정·존중의 대화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부부 참가자인 김진호3 집사는 "가르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며 상대중심적 경청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아내 최수연 집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끌려고 했는데 경청 80%, 말하기는 20%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부 참가자인 이학주 집사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경청과 질문의 자세를 배웠다고 전했고, 아내 박성미 집사는 “코칭대화의 중요성을 느꼈고 많은 배움이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세 팀은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가정 사역을 예고했다. 39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배운 대화법을 저마다의 가정에 가져가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다.

/ 박현미 편집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2교구 고성 군부대 방문



9월 10일(목) 2교구는 계대윤 목사 인솔하에 30명의 식구들이 ‘군선교’ 및 ‘통일기도회’로 강원도 고성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고성에 도착해 막국수로 점심을 먹은 뒤 부대 차의 안내를 받아 고성 최전방의 동해합동작전지원소(육군 00사단 지역 해군 특수부대)에 도착, 병사들의 환영을 받고 지휘관의 사명, 하는 일의 설명을 들으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군 장병 200명에게 햄버거 선물과 군부대 특별봉헌에 이어 ‘통일전망대교회’에서 박근일 담임목사의 ‘북한이 아버지의 땅, 그리스도가 왕이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라’는 말씀 후 통일과 북한 구원을 위한 통성기도회를 가졌고, 맑은 하늘 덕분에 금강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화진포 ‘셔우드 홀’에 들러 한국 결핵 퇴치에 힘쓴 셔우드와 로제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귀한 경험을 주신 목사님과 빡빡한 일정을 잘 따라 준 교구 식구들에게 감사드리며, 최전방을 지키는 국군장병들과 군선교에 헌신하는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나들이였습니다. / 박영란 권사(2교구 충무)

임산부 축복기도

9월 13일(주일) 영아부(부장 박윤신 집사)에서는 영아부 예배 시간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과 태아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가을(10월과 11월) 출산 예정인 총 5가정(6명의 태아)의 부모들이 앞으로 나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함께 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출산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영아부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축복송(너는 시냇가에)을 부르며 각 가정에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뒤이어 아빠와 엄마가 태아를 위해 직접 쓴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에는 감동과 은혜가 더해졌다. 영아부 예배에 함께 한 이들이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눈 뒤, 오한빛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 박윤신 집사(영아부 부장), 사진 김세현 집사





<축복기도에 함께 한 5가정>

김철균·김지연 집사 가정의 둘째 ‘만세’(태명) / 장선종·김혜정 집사 가정의 둘째 ‘용복이’(태명)

/ 박주안 목사·차혜수 사모 가정의 첫째(쌍둥이) ‘믿음이, 소망이’(태명)

최형민·윤새로미 집사 가정의 첫째 ‘송이’(태명) / 송슬기·이정진 집사 가정의 둘째 ‘예강이’(이름)

미디어와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9월 9일, 수요기도회에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안정도 교수를 모시고 급변하는 디지털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안 교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자극적인 알고리즘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읽기(말씀의 정독), 경청(사랑의 마음으로 듣기), 숙고(기도로 묵상하기), 성찰(자신을 돌아보기)의 네 가지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때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출처와 날짜, 맥락, 감정,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돌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AI를 사용할 때,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고, 사용에 책임을 지고, 그 사용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조유경 기자

제4여전도회 선교비 마련 '사랑나눔 바자회'



9월 13일(주일) 제4여전도회(회장 김은희 집사)는 미자립교회 선교비 마련을 위해 '사랑나눔 바자회'를 교회 마당과 오병이어의 집에서 열었다. 바자회를 위해 4여전도회 회원들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12일(토) 새벽예배 직후부터 오병이어의 집에 모여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새벽 6시부터 이른 아침을 깨우며 봉사에 나섰다. 올해 바자회는 새롭게 단장한 메뉴들로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비빔밥과 잔치국수 등 든든한 식사류를 비롯 떡볶이, 꼬마김밥, 어묵물떡 등 분식류, 김치전, 타코야끼 등 다채로운 음식들이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4남선교회 집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많은 양의 설거지를 적극적으로 도맡아주어 행사에 큰 힘을 보탰다. 선교회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훈훈한 감동이 되었다.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4여전도회가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만운교회(경북 안동), 벌방교회(경북 예천) 등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은희 집사(제4여전도회 회장)

연동테니스선교회 상반기 활동



5월 30일(토) 연동테니스선교회는 신일고등학교 테니스 코트에서 회원 간의 화합과 복음 전파를 위해 '춘계 친선 테니스 대회'를 열정적인 복식 경기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연동테니스선교회는 예술과 체육이 결합된 고급 스포츠인 테니스를 통해 건강하게 교제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현재 20명의 회원들이 매월 정기모임에는 8명 정도, 춘계, 추계 시합 때는 14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여 경기를 펼칩니다. 올해 추계 시합은 11월에 열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4:8)를 핵심가치로, 매달 세 번째 주일에 정기모임을, 그외 번개모임을 갖습니다. / 최명식 집사(연동테니스선교회 회장)

2027 연동교회 목회계획 발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2027 새 목회비전 제시

비전토크데이… 히브리서 6장으로 “말씀·은사·소명” 3축 세워

9월 6일 4부예배 후 제직회 뒤에 2027년 목회계획을 발표하는 ‘비전토크데이’가 열렸다. 기획위원회(위원장 권영석 장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히브리서 6장에 기초한 새 목회주제와 비전의 기본방향, 다섯 개 사역의 브릿지, 위원회·부서별 2027 사역 계획이 차례로 소개됐고, 발표 직후 성도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에 닻 내린 비전

2027년 목회주제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따온 ‘너희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Go on toward perfection로 정해졌다. “한 해 동안 말씀 위에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결단이 담긴 표어다.

이를 뒷받침할 ‘사역의 브릿지’ 다섯 가지도 함께 제시됐다. ▲심플처치 ▲Top-down&Bottom-up 의사결정의 균형 ▲녹색교회 ▲역사&전통 ▲혁신&변화다. 133년 전통 위에 혁신과 변화를 잇고, 말씀과 일상, 위와 아래의 결정을 잇는 ‘다리’(Bridge)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비전의 기본방향은 세 축으로 정리됐다. 첫째 말씀의 성숙함으로, ‘말씀의 반석을 세우라’(히 6:1-2) 둘째 성령을 통해 은사의 삶을 살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라’(히 6:4-5) 셋째 가정과 일터의 소명자가 되어 ‘땅의 수고로 복을 받으라’(히 6:7-8)다. 말씀 위에 서고, 은사로 살며, 일상의 부름을 감당하는 신앙이 2027년의 방향이다.

◆ ‘완전한 말씀 세우기’… 전 교인이 히브리서를 읽는다

비전 실천의 중심에는 ‘완전한 말씀 세우기 히브리서’가 놓였다.주일 설교와 특별저녁집회·특별새벽기도회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한다. 사순절과 특별주일은 제외하고, 한 해 동안 ‘완전한 데로 인도하는 히브리서’ 1년 말씀노트 책자를 함께 읽는다. YBS와 구역장 공부도 히브리서 말씀으로 채워지며, 낭독반·주석반·묵독반·암송반·필사반·게일성경번역반 등 여섯 개 반이 동시에 가동된다. 목양위원회(위원장 김주용 위임목사·부위원장 심현숙 장로)는 5교구 중점 목양사역을 펼친다. 2026년 구역 활동 평가를 토대로 형식적 모임을 재편해 신혼부부구역·아일(싱글)구역·영아부 자녀구역·유아유치부 자녀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분기 첫째 주일(성례주일)에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공동설교를 드린다.

◆ 3040세대 참여·재정 선진화·주파송 선교사 청빙… 위원회별 비전과 토론

인선위원회(위원장 박은화 장로)는 3040세대와 HI청년공동체의 교회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각 부서 전문위원으로 발탁해 제직회 총무·서기·회계에 3040세대 집사를 임명하겠다고 제시했다.

‘인재발굴·항존직 자격 TF’를 통한 다섯 가지 제안도 나왔다. ▲JOB-POSTING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새가족 달란트 발굴을 통한 조기 부서배치 ▲정기 로테이션 ▲전문 간사제도다.

예산위원회(위원장 김웅종 장로)는 사역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예배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5교구 사역자 심방비(월 10만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기재정계획 TF’를 가동해 기금 효율화와 수입구조 다변화, 장기수선충당기금 적립을 모색한다.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김이순 장로)는 현재 협력선교사 19명·기관 5개를 후원하고 있는 가운데, 2027년 협력선교지(필리핀 또는 태국) 청년부 단기선교를 지원하고 2026년 준비 끝에 2027년 중남미 선교비전트립을 실행한다. 2028년은 영국 브리스톨·에딘버러를 중심으로 한 중고등부 선교비전트립의 준비·교육의 해로 삼는다. 인선위원회와 함께 주파송 선교사 청빙을 논의하고, 장학기금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가칭) 게일선교기금 후원자 모집에도 나선다.

새가족부(부장 심현숙 장로)는 '새가족 사역 브랜딩'의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새가족 구역'을 신설한다. 1·2단계 교육을 마친 새가족이 1년 동안 구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에 자리 잡아 일반 교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미래세대부(부장 여명선 장로)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120주년 기념식 '120년의 믿음! 다음 120년의 소망!'과 함께 '120명 선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역사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장로)는 6차 게일학술세미나를 열고 순례길 사적화, 연동교회 역사 동판 제작·입구 설치, 역사박물관 굿즈(1901년 태극기·키링) 제작 등 단기 계획을 제시했고, 역사자료 디지털화와 스토리텔링화는 장기 과제로 잡았다.
예배부·국내선교부·평신도교육부·사회봉사부·친교부·영성훈련부·음악찬양부·문화선교부·재정부·상례부·총무부·HI청년공동체도 각자의 비전과 'TF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2027 구역 편성이 함께 안내됐다. ▲1교구 김환 ▲2교구 계대윤 ▲3교구 이건희 ▲4교구 이진우 ▲5교구 오한빛 ▲HI청년공동체 박주안 목사가 각각 담당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비전이 구체적 TF 과제로 이어지는가", "청년과 3040세대가 제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주파송 선교사 청빙을 위한 기도 동기와 결단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다.

◆ "노인은 꿈을, 젊은이는 비전을"… 133주년 향한 첫걸음

2027년은 연동교회 창립 133주년을 맞는 해다. 신년 특별저녁집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부활주일 축하음악예배, 창립 133주년 기념주일 축하음악예배, 온세대 성탄예배·성탄절 칸타타까지 절기마다 말씀의 자리가 마련된다.
월별로도 1월 신년 특별저녁집회와 종로시찰 일일부흥회, 2월 중남미 선교여행·재의 수요일, 4월 한식추모합동예식·특별찬양집회, 5월 온가족예배·어버이주일 경로잔치·다문화행사의 날, 7월 HI청년공동체 단기선교, 9월 비전토크데이·추석합동추모예식, 10월 신앙사경회·샌드위치 콘서트, 11월 추수감사주일 다문화합동 추수감사예배, 12월 성탄예배와 은퇴·추대예식 등 다양한 행사도 일정에 담겼다. 행사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비전)을 볼 것이며'(요엘 2:28)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류관식 장로의 마침기도로 마무리됐다. '단순·결속·전승'이라는 세 단어가 행사장을 떠나는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133년 전통 위에 새 비전을 세우는 연동교회의 2027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알렸다. / 임재철 기자

목회주제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히 6:1-2)
사역의 브릿지	심플처치 / Top-down·Bottom-up 의사결정의 균형 / 녹색교회 / 역사·전통 / 혁신·변화
기본방향 3축	① 말씀의 반석을 세우라 - 말씀의 성숙함으로 ②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라 - 성령을 통해 은사의 삶을 살아 ③ 땅의 수고로 복을 받으라 - 가정과 일터의 소명자가 되어
완전한 말씀 세우기 (히브리서)	① 주일 설교·특별저녁집회·특별새벽기도회 강해 (사순절·특별주일 제외) ② '완전한 데로 인도하는 히브리서' 1년 말씀노트 책자 ③ YBS·구역장공부 - 낭독·주석·묵독·암송·필사·게일성경번역 6개 반 ④ 매분기 첫째 주일(성례주일) 전교인 공동설교
위원회별 핵심	• 인선: 3040세대 제직 참여 확대·전문 간사제도 도입 • 예산: 예배비 5,000만→7,000만원, 5교구 심방비 신설, 중기재정계획 TF • 세계선교: 청년부 단기선교·중남미 비전트립·(가칭) 게일선교기금 • 새가족: 3단계 '새가족 구역' 신설 • 미래세대: 주일학교 120주년 기념·'120명 선교사 프로젝트' • 목양: 5교구 중점 목양·공동설교·'바이브릿지 3,4기 통합' • 역사: 6차 게일학술세미나·역사자료 디지털화·동판 제작
2027 구역 편성	1교구 김환 / 2교구 계대윤 / 3교구 이건희 / 4교구 이진우 / 5교구 오한빛 / HI청년공동체 박주안

교회 첫 출석 아기





8월 2일 주일 2부 예배

박서연 아기(여, 2025년 12월 15일생)
박상환 성도와 허정민 성도의 딸/ 4교구 길음구역
*허봉석 집사, 윤희 권사의 외손녀
*송경복 명예권사의 증외손녀



우리 서연이, 교회 첫 예배 출석을 축복해!
작은 두 손 모아 함께 기도드리는 이 예배가 엄마 아빠는 참 감사하고 행복해.
서연이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해. 어서 씩씩하게 자라서 두 발로 씩씩하게 출석하자! 사랑해 우리 아가♡



9월 13일 주일 3부 예배

최서한 아기(남, 2026년 6월 19일생)
최재우 집사와 강애정 집사의 아들/ 5교구 신혼부부 구역
강용국 안수집사, 박순애 집사의 외손자



사랑하는 서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너를 만나 정말 감사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할게. 서한이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따스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





9월 13일 주일 3부 예배

박세아 아기(여, 2026년 6월 24일생)
박예찬 성도와 한예은 집사의 딸/ 5교구 해피3구역
*한성기 성도, 김옥자2 집사의 외손녀

세아야 엄마·아빠, 그리고 언니한테 무사히 와줘서 고마워~♡.
세아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사랑스러운 세아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세례 7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조연서 아기(여, 2025년 12월 5일생)
조광희 성도와 김민재 성도의 딸/ 5교구 해피3구역
*조은상 집사, 변주란 집사의 손녀
*나은실 명예권사의 증손녀

연서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받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강하고, 예쁘고, 착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새가족 소개


이유준(4교구 이화구역)


임외석(2교구 56가주얼리구역)


선예화(4교구 삼선구역)


권요나(4교구 중구구역)


진인순(4교구 화양자양구역)


윤혜정(5교구 비전3구역)


백두현(1교구 마포용산구역)

[정정 안내]

"연못골" 6-7월호(627호) 61쪽에 실린 글쓴이 소속이 잘못 표기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김진 권사(부용찬양대 반주자) → 김진 권사(부용찬양대 대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편집자 주

〈신간 소개〉

애도 다이어리 "심지록(心紙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며, 삶은 죽음에 다다르는 과정이고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이 동행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별 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따라 "심지록"을 만들었습니다.

아크룸 대표 리디아(김영진)가 상실을 직접 겪으며 배운 죽음 곁의 진실과, 애도상담·죽음준비지도자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심지록"은 여름·가을·겨울·봄·간절기 다섯 계절을 따라가는 편지 다이어리로, 마음을 다독이는 편지와 실제 준비를 돕는 편지 열두 통과 150개의 질문을 통해 나와 가족의 삶과 죽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마음 날씨 스티커·포스터, 손수 놓은 편지지 '심지'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하루 한 질문씩 정답 없이 편하게 채우면 되고, 글이 어려운 날엔 스티커 하나로도 충분하며, 순서 없이 지금 마음과 가까운 계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 김영진 성도(HI청년공동체)

· 구입처: 아크룸 홈페이지(www.arcroom.kr)

▣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7,8월 러브릿지"溫(ON)" - "어떤 날씨도 막을 수 없는 이웃 사랑의 현장"

▶ 변덕스러운 날씨와 거센 폭우 속에서도 HI청년공동체와 함께 7월 2남선교회, 8월 3여전도회가 이웃을 향한 헌신으로 창신동 쪽방촌 섬김을 이어갔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HI청년공동체를 중심으로 매달 50명 이상의 성도님이 모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이웃 곁을 지키는 사랑의 발걸음을 보태어 왔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해 주신 두 부서의 헌신 덕분에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 찾아뵌 어르신들께서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 고맙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8월 "[부모참여 행사] 즐거운 물놀이 & 수박파티"

▶ 8월 5일 [열린어린이집/행사] 물놀이 행사 : 연동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 활동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연지물놀이터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와 수박파티'를 진행했다. 영유아와 가족들은 물놀이터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수박공과 수박풀장에서 놀이를 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물놀이에 참여하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즐거운 놀이 경험이 이루어졌으며, 휴식 시간에는 맛있는 옥수수와 시원한 수박, 달콤한 수박주스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여름의 즐거움을 느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님과 영유아가 함께 놀이하고 소통하며,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7월 여름캠프-캐리비안베이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7월23일(수)에 여름캠프로 '캐리비안베이'에 다녀왔다. 이번 캠프는 보령중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물놀이를 통해 아동들은 서로 배려하고 즐기는 하루를 만끽할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방학의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의 시간이었다.



신협 현황

(7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49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부채	합계
	5,990,963	37,557,636	2,662,468	805,460	47,016,527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2,343,060	683,594	80,575	13,909,298	47,016,527

(8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52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부채	합계
	5,991,134	37,151,861	2,650,465	1,036,459	46,829,919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2,083,604	968,347	76,336	13,701,632	46,829,919

목양위원회

■결혼식

- 박종진(박창배 권사, 길정순 협동권사 아들/이화구역) 군과 홍유선(홍선표 집사, 최윤정 권사 딸) 양

  7월 25(토) 오전 10시 30분 L65호텔 웨딩컨벤션 가든홀

- 손민기(손태화 님, 전영임 님 아들/신혼부부구역) 군과 장경희(장선업 안수집사, 김정하 집사 딸/성북1구역)양

  8월 8일(토) 오후 5시 L65호텔웨딩컨벤션 6층 컨벤션홀

- 황시온(황성식 안수집사, 이영미 집사 아들/HI-청년공동체) 군과 이한빛(이남범 님, 최성희 권사 딸/HI청년공동체) 양

  9월 12일(토) 오후 5시 서울대연구공원 웨딩홀 1층

- 김민성(김기호 원로장로, 김인숙 은퇴집사 아들/압구정청담삼성구역) 군과 박지은(박석룡 성도, 임미숙 성도 딸) 양

  9월 12일(토) 오후 5시 30분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 2층 그랜드볼룸

■장례식

- 이정숙 명예권사(최영철 집사 모친/광진중곡구역) 별세, 7월 25일 연동동산에 모심
- 박학순 권사(박문숙 권사 모친, 문우철 은퇴장로 장모, 문선아 성도 외조모, 김민철 성도 처외조모/송파구역) 별세,

  7월 30일 파주시 선영에 모심

- 이재몽 은퇴장로(곽명자 공로권사 남편, 행당금호구역) 별세, 8월 2일 구파발 선영에 모심
- 황국태 은퇴집사(구리남양주양평구역) 별세, 8월 8일 연동동산에 모심
- 이복규 성도(박현욱 권사 모친, 김성언 공로안수집사 장모, 김재흥 집사 외조모, 김수지 집사 시외조모/경인구역) 별세,

  8월 9일 일산 공감수목장으로 모심

*8-9월호(628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11월 8일(주일)까지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　　)

6-7월호 '연동컬러링'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손민기(신혼부부)-1773



여주미(신혼부부)-5465



이영우(연희홍제)-0905



강효원(유치부)-2634



장형윤(성북1구역)-0830



이예은(유치부)-4816

장선업(성북1)-4241, 강형옥(백주년)-4816, 김혜자(백주년)-2812
나경남(이화)-7844, 남상옥(효제)-4380

연 못 골 제 58권 628호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발행일 2026년 9월 20일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윤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종은 남다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조유경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이 단 주 의






YD
패밀리 초청
페스티벌




10월부터 교회 셔틀 버스 무료 운행
혜화역 3번 출구 ↔ 연동교회
약 800m · 도보 10-15분 · 셔틀 차량 약 3분
혜화역
3번 출구 옆
서울 종로약국 앞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서틀 승·하차 지점
연동교회
도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순수 무료 운행 · 예배 시작 10분 전 도착 목표


아기탄생축하금
500,000원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잘 익은 과일에는
비바람과 햇볕이 다 들어 있다.
우리의 오늘도 그러하리라.
좋았던 날과 힘들었던 날이
함께 은혜의 열매로 익어가는 중이다..

8-9월호(628호)